

2011 학년도 수시 2-2 대학별 논술 특강

2011 년 대입의 마지막 전략  
“수시 논술의 비기”

파이널

... 고려대편 ...

•논술비기팀•

## ●●●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대비 秘器

고려대 "요약, 비판, 수리모형의 이해"

총3-4문항 출제

1번 요약 문항이 의외로 중요하며, 수리논증형이 걸림돌이 된다.

비교적 긴 제시문을 500자 내외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단순히 줄거리 위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자기 말로 바꾸어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 제시문으로 나오는 수리논증형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수시2-2, 대입의 마지막 전략!**

# ‘수시 논술의 비기’ 파이널

학교별 유형대비 맞춤형 특강

이지에듀학원 \* 02-546-8170 \* 강남구 삼성동 27-17 3층

| 지원학교 | A반 개강          | 시수(1T3시간)   | B반 개강         | 시수(1T3시간)   |
|------|----------------|-------------|---------------|-------------|
| 중앙   | 19일(금) 오전11:00 | 19일, 3T     | 19일(금) 오후2:00 | 19일, 2T     |
| 성균관  | 19일(금) 오전11:00 | 19일/20일, 6T | 19일(금) 오후2:00 | 19일/20일, 4T |
| 연세   | 19일(금)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4일간, 8T     |
| 고려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한양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서강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외대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경기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서울여대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인하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6일간, 12T    |
| 숙명여대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6일간, 12T    |

## PART1 제시문 분석연습

### LEVEL 1

#### 예제1-대립관계형 21

다음 제시문을 대립되는 논점이 잘 드러나도록 비교하시오. (500자)

(가)

수의학에서의 안락사는 어떨까? 법적으로든 물론 안락사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병원에 따라서 수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안락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근데 문제는 안락사의 시점이다.

상황에 따라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상황이 왕왕 있다. 근데 고객에게 안락사를 시키자는 말을 차마 못한다. 곧 죽을지 알면서도 강아지의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면서도 안락사가 유일한 방법인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꼬마의 얼굴을 보면서 자식처럼 키우다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죽음을 앞둔 강아지 앞에서 슬퍼하는 노부부를 보면서 일주일간의 입원 후에 극심한 경련을 하는 강아지를 곁에 두고 문병 온 주인 앞에 안락사 이야기를 할 때의 입장이란 수의사가 된 후 제일 힘들 때가 이 때다.

(나)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교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묻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이번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 (존엄사의 고찰)는 2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 한림대 생사학 연구소 등이 “소극적 안락사 논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하는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1%였다.

또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를 대비해 환자 스스로 사전에 치료 거부 또는 치료중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70.8%, 25.3%로 훨씬 많았다. 그리고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는 사법연수생 397명(86.3%), 전공의 160명 (91.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안락사 허용 정도를 소극적 안락사까지 라고 답한 사람은 사법 연수생 304명 (76.6%), 전공의 106명 (66.2%)이었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사법연수원생 93명(23.4%), 전공의 54명 (33.8%)였다.

(다)

에케의 아들을 안락사시켜 달라는 스튜들레의 부탁을 거절하고 난 후, 앙투안느는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데 익숙해 있었다. 갓난아이의 고통까지도. 그런데 오늘밤은 어째서 무감각해

질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임종 때는 언제나 불가사의하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전혀 각오가 안 된 사람에게 그러하듯 오늘밤에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 속 깊은 데까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동에 대한 신뢰는 물론, 과학과 생명에 대한 신뢰마저도 철저히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를 침몰시키는 파도와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불길한 행렬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불치의 진단을 내렸던 환자들의 행렬... 오늘 아침의 명단만 해도 상당수가 된다. 병원에서 진찰한 네댓 명의 환자들. 위 게트, 에른스트의 어린 아들, 눈먼 갓난애, 지금의 경우.... 그리고 또 있었는데 잊어버렸구나! ... 그는 의자에 처박히듯 앉아 두터운 입술을 우유로 축이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생각했다.... 몇 주일 뒤에, 고통스런 몇 날 몇 밤을 보낸 뒤에, 그 건장한 노인도 똑같이....

그렇다. 모든 사람들은 차례 차례로! ....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불행에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지..... '그렇다. 삶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삶은 사악한 것이다!' 그는 마치 고집 센 낙천가에게 말하듯 이렇게 격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고집 센 사람, 명청하게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며, 매일매일의 앙투안느였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승락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것 이상의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도 두 가지 해결책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헤매게 될 때, 그는 흔히 더 많은 의지를 필요로 하는 쪽을 택해 왔다. 그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보아 그런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밤만은 자신이 옳게 판단했으며 정당한 길을 택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입에 담았던 몇 가지 말 때문에 괴로웠다. 그는 스튜드레에게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통상적인 어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생명의 존엄성...' 존엄성인가 아니면 맹목적 숭배인가? ... (로제 마르탱 뒤 가르, 티보 가의 사람들)

(라)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환자가 생기면 유토피아인들은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아주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약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줍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는 간호부가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어 기분을 돋우어 주며, 증상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불치병인 데다가 질병이 극심한 고통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부들과 공무원들이 찾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은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도 짐이 됩니다. 사실, 당신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계속 병균을 기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죽기를 주저합니까? 당신은 고문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탈출을 해서 더 좋은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해방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망은 상식일 뿐입니다. 또한 신부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부의 충고에 따르는 것은 경건한 행위입니다."

환자는 이러한 권고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굶어 죽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고 고통 없이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 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어서, 만일 환자가 살기를 원하면, 누구나 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돌보아 줍니다. 공인된 안락사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부나 트라니보루스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자살을 하면 매장 또는 화장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시체는 아무런 의식 없이 연못에 던져 버립니다.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가)-(다)는 현대인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 양상을 분석하시오. (500자)

(가)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고객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소매 상점에서는 찾아오는 고객을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고객은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았고, 그의 일상까지도 상점의 주인과 함께 의논할 수 있었다. 물건을 사는 행위 그 자체에서 고객은 자기의 중요함과 품위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백화점의 경우, 고객은 우선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점원들과 잔뜩 진열된 상품에 의해 압도된다. 이 모든 것에 비해 그는 자기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느끼게 된다. 백화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으로서의 그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한 사람’의 고객일 뿐이다. 백화점은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는 단지 추상적인 고객으로서 대접받을 뿐이지 구체적인 고객으로서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현대의 광고 방법에도 잘 드러난다. 거대한 현대 광고는 상품의 효용성을 강조하여 합리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한다. 즉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거나, 사교계의 부인과 유명한 권투선수에게 특정 상표의 담배를 붙여 물게함으로써 권위 있는 이미지를 생기게 한다든가, 아름다운 소녀의 성적인 자극을 내세워 비판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든가, 어떤 셔츠나 비누를 삼으로써 뭔가 전 생애가 갑자기 변화하는 듯한 그런 공상을 자극하기도 한다.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

지나간 두 세기 동안 기계적인 생활 수단이 전 세계적 규모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면 생활이 풍요로워지거나 예술 창작과 향유에 쓰여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지는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계화의 과정에 더욱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그 대부분이 내발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상상력은 기계에 비껴러 매이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 실재성을 보유할 아무런 힘도, 생존 능력도 갖지 못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17세기, 즉 기술 면에서 비교적 원시적이던 그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보라. 그 당시 평범한 런던 시민들은 심지어 하인들을 뽑을 때에도 그가 저녁 시간에 벌어지는 가족음악회에 한몫 질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고려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야외에서 기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유롭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며, 휴대용 음향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강변을 거니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루이스 멀퍼드, 예술과 기술)

(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불렀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듯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시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 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시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 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시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니깐요. 씨팔 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시다.”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어튼…….”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어다 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500자)

(가)

하루는 여자 둘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저의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넣어 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임금은 “칼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나)

이 깊고 긴 겨울밤들을 예감했을까 봄날 텃밭에다 무우를 심었다. 여름 한철 노오란 무우꽃이 피어 가끔 벌, 나비들이 찾아와 동무해주더니 이제 그 중 큰 놈 몇 개를 뽑아 너와지봉 추녀 끝으로 고드름이 열리는 새벽까지 밤을 재워 무우채를 썰면, 절망을 썰면, 보은산 경경 울부짖는 승냥이 울음소리가 두렵지 않고 유배보다 더 독한 어둠이 두렵지 않구나. 어찌다 폭설이 지는 밤이면 등잔불을 어루어 시경강의보(詩經講義補)를 엮는다. 학연아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이며 한이라는 것도 속절이 없어 첫해에는 산이라도 날려보낼 것 같은 그리움이, 강물이라도 짝뚝뚝뚝 베어버릴 것 같은 한이 폭설에 간혀 서울로 가는 길이란 길은 모두 하얗게 지워지는 밤, 사의재(四宜齋)에 앉아 시 몇 줄을 읽으면 세상의 법도 왕가의 법도 흘러가는 법, 힘줄 고운 한들이 삭아서 흘러가고 그리움도 남해바다로 흘러가 섬을 만드누나.

(다)

80년대 말 YK는 경쟁 환경의 심화, 경영 악화, 심한 노사간의 불신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YK는 정리 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라는 일반적인 대처 방식 대신에 일부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여 3조 근무 방식을 4조 근무 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단순히 보면 이것은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모든 노동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4개조 2교대 근무방식을 채택한 YK는 예비 학습조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조 도입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비 증대는 설비가동률 제고와 생산성 향상으로 보전될 수 있었다. YK모델의 핵심인 4개조 2교대 작업방식은 기존의 통상적 작업체계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성이 크게 높아졌고, 다양한 경영참여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그리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제고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활동에도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준다. 이러한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노사관계 혁신이 집적될 경우 국가 전체의 노사관계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YK사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메시지도 주고 있다.

(가)에서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를 의로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 당혹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사마천의 이러한 시각을 (나)와 (다)을 바탕으로 논박하시오. (800자)

(가)

백이와 숙제는 고죽군의 아들들이다. 아버지 고죽군은 숙제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숙제는 형인 백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백이는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며 사양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자 숙제도 도망쳐 버렸다. 그 후 백이와 숙제는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이 노인을 잘 대우한다는 말을 듣고 귀의하려고 찾아갔다.

주 나라에 이르니 마침 문왕은 죽고,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아들 무왕이 나무로 만든 문왕의 신주(神主)를 수레에 싣고 은(殷) 나라의 주(紂) 임금을 정벌하러 가는 중이었다. 백이와 숙제는 그의 말고삐를 잡고 간언하였다.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장사를 지내지 않고 곧장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하가 주인 격인 은 나라를 치는 것을 인(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왕의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 하자, 태공망이라는 사람이 “이들은 의인(義人)이다.”라고 하며 무사히 떠나게 하였다.

무왕이 은 나라를 정벌하자 천하는 무왕의 주(周) 나라를 종주(宗主)로 받들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의(義)를 지켜 주(周) 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마침내 굶어 죽고 말았다.

백이와 숙제 같은 사람은 정말 선인(善人)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인(仁)을 쌓고 깨끗한 행동을 하였는데 굶어 죽고 말다니! 공자는 70명의 제자 중에서 안회(顔回)만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추켜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나 안회는 굶기가 일쑤였고 술지게미조차 배불리 먹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하여 베푸는 것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반면 도척은 매일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고기를 먹었으며, 흉포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면서 수천의 무리를 모아 천하를 횡행하였지만, 결국 천수를 다 누렸다. 그가 무슨 덕(德)을 쌓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또한 근세에도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하면서도, 일생을 편안히 살 뿐 아니라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 반면 땅을 가려서 밟고, 때가 되어야 말을 하며, 사잇길을 가지 않고 공정한 일이 아니면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는 심히 당혹함을 금치 못하겠다. 도대체 이른바 천도(天道)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사마천, 사기(史記))

(나)

은 나라의 후반기 통치계급은 갈수록 부패해갔다. <상서(尙書)>에는 “당시 왕들은 농사짓는 어려움과 백성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오직 쾌락과 안일만 추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은 나라 말기 주(紂) 임금 때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였다. 그는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였으며, 엄한 형벌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탄압하였다.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도 심각해졌다. 주(紂) 임금의 충신이었던 비간은 간언하다가 처형되었고, 기자는 미친 척했으며, 미자는 도망가 버렸다. 이처럼 충직한 신하들이 주(紂) 임금을 지지하지 않게 되자, 통치집단이 붕괴 상태에 빠졌으며, 이것은 은 왕조의 멸망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한편 이 무렵 주(周) 나라에서는 문왕(文王)이 왕위에 올랐다. 문왕은 농업생산의 제고에 진력하였으며,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는 어진 정치로 인망(人望)을 모았다. 이러한 국력의 배양과 민심의 지지를 기반으로,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은 나라의 주(紂) 임금을 정벌하였다. (전백찬, 중국전사(中國全史))

(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개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에 의해 운명의 여신의 세력권 밖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여신의 은총을 받아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며, 또 미움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지를 음지라고 하건 양지라고 하건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이 경지는 본래 음지도 아니고 양지도 아니다. 다만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울 뿐이다. 부귀와 건강, 미모, 명예, 권력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와 반대되는 고뇌와 질병, 추방, 죽음 등의 경우도 그렇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며, 인간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들이 덕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으로도 생각되고 악으로도 생각될 뿐이다. 울부짖거나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에 대한 거부로, 이와 같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하고 때로 실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자기 운명을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애써 창조할 일이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창조해 나가기만 하면, 운명의 여신이 얼굴을 찌푸린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 여신이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인다고 해서 황홀해할 필요가 없다. (L. 세네카, 행복론)

제시문 (가)의 주장에 대해 제시문 (나) (다) (라)의 사례를 적용해 비판하시오. (800자)

(가)

차별적, 혐오적인 언어로 소수그룹을 모욕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은 성차별적이거나 특정 인종, 민족, 또는 장애인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공공에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언어사용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일면 언어의 문법구조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사피어-워프 가설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fireman’이라고 하면 무의식중에 소방관은 늘 남성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말과 용어를 쓰느냐가 인간의 사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곧 성차별적인 어휘를 쓰다 보면 성차별주의자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fireman’은 ‘firefighter’로, ‘black’(미국 흑인)은 ‘African American’으로 중성적이거나 차별성이 적은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의 기본 정신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차별적 언어를 순화하여 극단적 감정을 억제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땅콩을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표현할 때 땅콩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나)

감독 겸 배우 멜 깁슨(50)이 취중에 내뱉은 반유대인 발언 때문에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깁슨은 지난달 28일 로스앤젤레스 말리부 해안도로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의 전쟁은 모두 ×같은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그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중략) 할리우드와 미국의 미디어산업이 유대인 ‘큰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게다가 깁슨의 경우, 지난 2004년 자신이 제작,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내용이 반유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력이 있어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할리우드내의 파워 단체인 반유대인 명예훼손리그(ADL)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여 “깁슨이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자신의 영화를 둘러싼 논쟁 중 자신이 포용력 있고 폭넓은 사랑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 말이 속임수임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중략)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깁슨은 1일 성명을 발표, 유대인 사회에 용서를 구했으며, 그의 사과를 유대인 사회 및 할리우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반유대 발언 멜 깁슨, 할리우드에서 ‘왕따’”, 연합뉴스, 2006. 8. 2.)

(다)

요즘 미국 학교에서는 빨간색 잉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언행을 조심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관례를 흉내 내려는 듯 교육계에서도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답안 채점 과정에서 틀린 답에 빨간색으로 ‘X’ 마크를 하면, 스트레스와 모욕감 등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보다 부드러운 색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이는 어른,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련한 온실의 꽃’으로 생각하고 실망과 좌절로부터 보호해야만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또 하나의 예이다. 또한 교정에서 ‘피구(避球)’뿐만 아니라 술래잡기도 금지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명했듯이, “이 게임에는 ‘희생자’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경쟁적인 스포츠를 폐지하고 혼자 하는 운동으로 대체하자는 교육자들도 있다. 이런 난센스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교육 당국자들이 가장 내세우는 가치가 자존심인 것 같은데, 강한 자존심이 성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바 있다. 중국이나 인도같이 미국

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들의 학교 교실들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교사들이 빨간 펜을 주저 없이 사용하고 있다.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경쟁과 비판,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빨간 펜, 줄다리기, 피구 모두를 감당해낼 수 있다. ‘술래’가 되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학교 방침 재고해야”, 매경 USA Briefing, 2005. 6. 17.)

(라)

농촌봉사활동(농활)을 떠난 일부 대학 학생들이 농민들의 성희롱성 발언을 이유로 중도 철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아줌마’, ‘아가씨’ 등 농민들에게는 통상적인 발언이 여대생들에게는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 차 때문이다. 서울 모 대학의 한 농활대는 마을잔치에서 농민들이 여학생을 ‘아줌마’로 지칭하고 다른 농민과 이야기하는 여학생에게 ‘지금 둘이서 사귀냐’고 말하는 등의 상황을 접했다. 학생들은 이를 ‘언어적, 정황적 성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자신들의 입장을 농민들에게 설명했다. 사과는 받아냈지만 학생들은 농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이에 해당 대학 총학생회는 아예 농활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중략) 농활 철수에 대해 일부 대학가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서울 모 대학 학생회장 류모씨는 “농민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발언이 성폭력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활에 참가했던 한 학생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결하는 것도 농활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논란 휩싸인 농활”, 경향신문, 2004. 7. 7.)

## LEVEL 2

### 예제1-대립관계형 26

다음 제시문을 대립되는 논점이 잘 드러나도록 비교하시오. (800자)

(가)

각 개인이 자신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본을 투자 운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하여 제품이 최대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생산 활동을 운용한다면, 각 개인은 결국 사회 전체의 연간 소득을 늘리는 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얼마나 공공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산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만을 보장하려 하고, 자신의 제품이 최대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생산 활동을 벌임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의 이윤만을 높이려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다른 수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공공 증진의 결과를 낳는다. 공공 증진이 그의 생산 활동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언제나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

(나)

고자가 말했다. “사람의 본성이란 바구니를 만들 때 쓰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네. 의로움이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바구니라고 할 수 있지. 사람의 본성을 가르쳐 어질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를 구부리거나 휘어서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맹자가 말했다. “자네는 바구니를 만들 때 버드나무 가지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만드는데, 아니면 버드나무 가지 본래의 성질을 어그러뜨려서야 바구니를 만드는데?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사람에게 대해서도 본성을 어그러뜨려서야 어질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겠네. 그러? 세상사람 모두로 하여금 어질함과 의로움을 해치게 만드는 것은 분명 그대의 말일 것이네.”

고자가 말했다. “사람이 본성이란 간혀서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은 것이지. 동쪽을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주면 서쪽으로 흐르는 법이네. 사람의 본성에는 선함이니 선하지 못함이니 하는 구분이 없네. 이것은 물에 본래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네.

맹자가 말했다. “물에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 그러나 높고 낮음의 구분도 없을까? 사람의 본성이 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같네. 사람은 누구나 선을 향해 움직이고, 물은 어느 것이나 낮은 데로 흐르는 법이네. (맹자, 고자 상편)

(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 것이니, 선이란 인위적으로 된 것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여 양보란 있을 수 없을 것이요, 또 나면서부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마련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할 줄만 알 뿐 신의나 성실성은 없을 것이다. 또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려는 감각적 욕망이 있으니, 그대로 두면 무절제해져서 사회규범으로 지켜야 할 예의나 규범의 형식적 절차인 문리(文理)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성질이나 감정에 맡겨버린다면 반드시 서로 싸우고 빼앗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니, 반드시 스승의 교화와 예의의 법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해야 남에게 사양할 줄도 알고 사회의 질서를 지킬 줄도 알아 세상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천성은 원래 악한 것이 분명하며, 선이란 인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에 쪼여 바로잡아야 곧게 되고, 무딘 칼은 반드시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인지라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바로 잡히고 예의를 얻어야 다스려질 것이니, 만일 스승이 없으면 편벽된 데로 기울어져 부정해질 것이요, 예의가 없으면 난폭해져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왕이 이를 위하여 예의를 일으키고 법도를 세워, 성정을 교정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따르고 도리에 맞도록 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 스승의 감화를 받고 학문을 쌓아서 예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제 성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소인이 되니, 이로써 사람의 본성은 악인 것이 분명하며 선은 인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순자, 성악편)

(라)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설명의 문제점은 이타성의 진화가 어떻게 전체 종의 생존 혹은 멸종처럼 전체적인 단위(general level)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발견된다. 선택의 실제적인 단위는 종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작은 집단도 아니며, 개체 또한 아니다. 선택의 단위는 바로 유전자(gene)인 것이다. 유전자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 어떤 유전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개체로 하여금 생존이나 번식을 고양시키는 특성을 갖게 하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반면 유전자가 자신을 실어 나르는 개체로 하여금 자손을 적게 남기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유형의 유전자는 자신을 실어 나르는 개체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전체 종 단위의 선택 이론이 유전자 선택 이론보다 합당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진화에서 유전자가 선택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빈도로 종 또한 선택된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개체들이 번식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빈도로 오래된 종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자연은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종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가며 서서히 진화한다. 그런데 진화의 과정이 이처럼 완만하다면 정상적으로 따져 볼 때 이타성으로 유도되는 유전자는 종 전체에 유전자가 퍼져(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전체로서의 종에 이익이 되기도 전에(동일한 종 구성원들간의 경쟁에서) 이기적 행위로 유도되는 유전자에게 패배해 버리고 말 것이다. (중략)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진화는 유전자들의 생존 경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유전자’라는 단어는 물리적 DNA조각—이러한 의미에서의 유전자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개체로서의 늑대, 검은새 또는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DNA의 유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유전자는 무한정 살아남을 수 있다. (중략)

이렇게 본다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위—다른 어느 누구도 고려치 않고 오직 내 스스로만의 생존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진화에서 선택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나의 운명은 이타성을 갖도록 정해져 있다. 나의 유전자의 생존은 내가 자손을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나의 자식이 그의 자식을… 등등으로 결정된다. (피터 싱어, 사회생물학과 윤리)

(마)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겐 그들대로의 분별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한층 인정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인 즉,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신한 수많은 남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런 주저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는 욕심으로 그들의 고향, 정든 집, 친척, 재산을 버리고 자기네들의 별장 또는 다른 사람들의 별장으로 피난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번 전염병으로 인간의 죄업을 벌주려는 신(神)의 노여움이 시외로 피난 간 그들을 빼놓고, 이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략)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



졌을 때 팜피네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이지만,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전력을 다 하여 우리들 각자의 생명을 기르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죄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 중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어야 할 법률까지도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니, 하물며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얼마나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한 일, 지난 여러 달 동안 우리가 해 온 일, 그리고 여태까지 주고받아 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죽음의 공포’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긴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여자만이 지닐 수 있는 섬세한 성품을 가졌으면서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이런 불안에 대하여 적당한 예방책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고집과 태만으로 인하여 죽음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우리가 조심만 하면 피할 수도 있는 불행이니 저의 생각으론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가장 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별장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우선 그곳으로 가서 죽음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서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품위는 버리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지낸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푸른 언덕과 평야, 그리고 바다의 물결처럼 출렁거리는 밀밭 벌판과 살랑거리는 갯가지 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여기보다 훨씬 환하고 푸를 것이요, 가령 험상궂은 날씨라도 황폐한 이 도시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몇 갑절 유쾌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게다가 공기는 훨씬 더 깨끗하고, 요즈음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일용품도 시골이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선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괴로움도 덜 합니다. 물론 여기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골에서도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가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에 따라 슬픔도 적을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곳을 떠난다 해도 물인정하게 누구를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버림을 받은 것은 우리들이니까요. 가족들이라고 해도 모두 죽거나 피난을 가서 마치 아무것도 안 되는 타인인 것처럼 우리들만을 이 무서운 재액 속에 남겨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의 제안대로 우리가 시골로 간들 무슨 비난을 받게겠습니까? 어떠한 비난도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으면 괴로움과 고민, 그리고 잘못하면 죽음의 마수에 걸려들지도 모릅니다.”

(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러한 선함을 계발(啓發; unfolding)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간 생활 속에서 자기 표현과 자기 성취는 사회의 공통적인 신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섬머힐 학교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배움이란 학생들이 자라면서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간섭하지 말고,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성장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A. S. Neill, 섬머힐)

(사)

말은 그 발굽으로 서리와 눈을 밟을 수 있고, 그 털로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경충경충 뛰어다니는데, 이것이 말의 천부적인 성질이다. 비록 높은 누각과 궁전이 있어도 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백락(伯樂)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말을 잘 다룬다”고 하면서 털을 태우거나 깎으며, 발굽을 깎고 낙인을 찍으며, 굴레와 고삐로 묶어 마구간에 매어 놓으니, 말 열 마리 가운데 두세 마리는 죽고 마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말을 혼란시킨다면서 배를 주리게 하고 목마르게도 하며, 달리게 하고 뛰게도 하며, 정돈시키고 늘어 세우기도 하며, 앞에서는 채갈과 가슴걸이 장식으로 못 견디게 하고, 뒤에서는 채찍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말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나 죽고 말았다.

또 옹기장이 “나는 찰흙을 잘 다루니 둥근 그릇이라면 원형을 그리는 그림쇠를 댄 것처럼, 모난 그릇이라면 네모를 그리는 곱자를 댄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목수는 “나는 나무를 잘 다루니 곱게 깎으면 갈고리 같고, 곧게 깎으면 먹줄에 맞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찰흙과 나무의 본성이 어찌 그림쇠나 곱자나 갈고리나 먹줄에 맞추어지기를 바라겠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백락이야말로 말을 잘 다루는 명수고, 옹기장이나 목수는 찰흙과 나무를 잘 다룬다”고 칭찬을 하니, 이것 또한 인의(仁義)와 예악(禮樂)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들이 현인(賢人)이나 성인(聖人)으로 칭찬받고 있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뜻하는 바 천하를 잘 다스린다고 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저 백성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고 밭을 갈아 밥을 지어 먹으니, 이를 만민들이 자연의 도에 맞게 살아가는 공통된 덕이라 하고, 한결같이 치우치지 않으므로 자연 그대로의 자유라고 한다. ... 그런데 성인이 나타나서 예악으로 몸을 굽히게 하여 천하 사람들의 몸을 바로 잡는다 하고, 인의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했으므로 백성들은 헛되게 지식을 좋아하게 되고 이익을 좇아 다툼을 그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 역시 성인의 허물이다. (장자, 외편 마제)

아래 두 글에는 '아이를 땅에 묻으려 한 행위'와 '딸의 눈에 청강수를 넣는 행위'가 서술되어 있다.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고려하여 두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500자)

(가)

손순(孫順 : 古本에는 孫舜이라고 했다)은 모량리(牟梁里) 사람이니 아버지는 학산(鶴山)이다. 아버지가 죽자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아 양식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운오(運烏)였다. 손순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항상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손순은 민망히 여겨 그 아내에게 말했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가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소. 그런데 아이가 어머님 음식을 빼앗아 먹어서 어머님은 굶주림이 심하시니 이 아이를 땅에 묻어서 어머님 배를 부르게 해 드려야겠소.' 이에 아이를 업고 취산(醉山: 이 산은 모량리 서북쪽에 있다) 북쪽 들에 가서 땅을 파다가 이상한 석종(石鍾)을 얻었다. 부부는 놀라고 괴이히 여겨 잠깐 나무 위에 걸어 놓고 시험삼아 두드렸더니 그 소리가 은은해서 들을 만했다. 아내가 말했다.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필경 이 아이의 뭍인 듯싶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묻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편도 이 말을 옳게 여겨 아이와 석종(石鍾)을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들보에 매달고 두드렸더니 그 소리가 대궐에까지 들렸다. 흥덕왕(興德王)이 이 소리들 듣고 좌우를 보고 말했다.

'서쪽 들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나는데 맑고도 멀리 들리는 것이 보통 종소리가 아니니 빨리 가서 조사해 보라.' 왕의 사자(使者)가 그 집에 가서 조사해 보고 그 사실을 자세히 아뢰니 왕은 말했다.

'옛날 곽거(郭巨)가 아들을 땅에 묻자 하늘에서 금술을 내렸더니 이번에는 손순이 그 아이를 묻자 땅 속에서 석종이 솟아 나왔으니 전세(前世)의 효도와 후세의 효도를 천지가 함께 보시는 것이로구나.' 이에 집 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어 순후한 효성을 숭상했다.

(나)

한데 그 때였다. 여인의 말 가운데 부지중 뜻밖의 사실이 한 가지 흘러 나왔다.

'행여 또 그런 핏줄 같은 한 사람쯤 있었다 해도 앞을 못 보는 그 여자 처지에 뗏뗏이 얼굴을 내밀고 찾아 나설 형편도 못 되었고요.' 여인의 눈이 장님이었던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 여자가 그럼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던 말인가? 그리 된 내력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다던가? 그 여자 아마 태생부터가 장님으로 난 여잔 아니었을 거 아닌가 말이네!' 사내의 표정이 갑자기 사납게 흔들리고 있었다. 여인은 무의식중에 깜박 그런 말을 하고 나서도, 사내의 반응에는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천연스럽게 말꼬리를 다시 뭉치려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장님이었던 걸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하기가 그 여잔 눈이 먼 사람답지 않게 거동이 워낙 가지런해서 함께 지내고 있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고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손님 말씀대로 그 여자도 태생부터가 장님은 아니었던가 봅디다.' '그래, 어떻게 되어서 눈을 잃게 되었다던가? 사연을 들은 것이 있었으면 들은 대로 얘기를 좀 털어놔 보게.' 사내의 목소리는 억제할 수 없는 예감에 떨고 있었다. 그러자 여인은 처음 얼마간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말끝을 자꾸 흐리려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사내의 기세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상세한 내력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요…….'

딸아이에게 눈을 잃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로 그 사람이었을 거라 말한 것이 여자가 사내에게 털어놓은 놀라운 비밀의 핵심이었다. 소리꾼의 계집 딸이 나이 아직 열 살도 채 못 되었을 때 —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그의 아버지 곁에서 잠을 깨어 일

어나게 되었고, 잠을 깨고 일어나 보니 그녀의 얼굴은 웬 일로 숯불이라도 들어부은 듯 두 눈알이 모진 아픔으로 활활 타들어 오는 것 같았고, 그것으로 그녀는 영영 앞을 못 보는 장님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라 했다. 여자의 아버가 잠든 계집자식 눈 속에다 청강수를 몰래 찍어 넣은 것이라 했다. 그런 얘기는 여인이 멀찍이 읍내 대갓택 심부름꾼 시절서부터 이미 어른들에게서 들어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눈으로 뻔칠 사람의 영기가 귀와 목청 쪽으로 옮겨가서 눈빛 대신 사람의 목청소리를 비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적의 여인은 결코 그런 끔찍스런 얘기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사실이 못내 궁금해진 여인이 그 눈이 먼 여자 앞에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물었을 때 가엸은 그 계집 장님은 길고 긴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어도 좋은 듯이 응대를 하고 말더라는 것이었다. (중략)

사내는 이제 얼굴빛이 참혹할 만큼 힘이 빠져 있었다. '그래 여자는 그럼 자기의 눈을 멀 한 비정스런 아버를 어떻게 말하던가?' (중략)

'행동거지로만 본다면야 말도 없고 원망도 없었으니 용서를 한 것 같아 보였지요. 더구나 소리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되려 당연하고 장한 일처럼 여기고들 있었으니까요.' '그 목청을 다스리기 위해 눈을 멀게 했을 거라는 얘기 말인가?' '목청도 목청이지만, 좋은 소리를 가꾸자면 소리를 지니는 사람 가슴에다 말 못할 한(恨)을 심어 줘야 한다던가요?' '그래서 그 한을 심어 주려고 아버가 자식 눈을 빼앗았던 말인가?' '사람들 얘기들이 그랬었다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500자)

(가)

웃음에 기초하면서도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의전과 의식(ritual)의 형식들은 중세 유럽의 모든 국가에 존재했다. 그러한 ‘의식적 구경거리들(ritual spectacles)’의 형식(카니발 행렬이나 장터의 희극적 불거리)은 엄숙한 공식적, 종교적, 봉건적, 정치적 형식이나 의례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것들은 완전히 상이하고 비공식적인 그리고 종교와 정치를 벗어난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과 인간과 인간관계들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하여 의식적 구경거리들은 모든 중세인들이 참여하는 공적인 세계 밖에 제2의 세계, 제2의 삶을 건설하였다. 세상과 삶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관점은 이미 문화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도 존재했다. 원시인의 민속을 보면 엄숙한 제사와 병행하여, 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희극적 제사가 있었다. 그것은 ‘제의적 웃음’이라 칭할 수 있다. ...중략... 공식적인 축제와는 대조적으로 카니발은 지배적인 진리와 기존질서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을 구가한다. 모든 계급적 지위, 특권, 규범, 금지의 중지가 카니발의 특색이다. 카니발은 진정한 시간의 잔치, 곧 생성과 변화와 재생의 잔치이다. ...중략...

카니발 언어의 모든 상징들은 이러한 변화와 재생의 파토스(pathos)와 지배적인 진리와 권위에 대한 유쾌한 상대성의 감각으로 충만해 있다. 우리는 여기서 특유한 논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뒤집기와 돌려보기의 논리이자,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지속적으로 ‘이동함’의 논리이며, 다양한 패러디와 익살스러운 모방과 비하와 신성 모독과 희극적인 대관(戴冠)과 탈관(脫冠)의 색다른 논리이다. ...중략...

웃음에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있다. 웃음은 세계 전체에 관한, 그리고 역사와 인간에 관한, 진리의 본질적인 형식들 가운데 하나이다. 웃음은 세계와 관계하는 특수한 관점이다. 세계는 엄숙함의 관점에서 본 것 못지않게 (아마도 훨씬 더) 심오하게 그리고 새롭게 보인다. 그러므로 웃음은 엄숙함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위대한 문학’ 속에 수용될 수 있다. 세계의 어떤 본질적 측면들은 오직 웃음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중략)

계급문화의 엄숙한 측면들은 공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것들은 폭력과 금지와 제한과 결합되어 있으며 항상 공포와 위협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세를 지배했다. 중세인들을 가장 감명시킨 것은 공포에 대한 웃음의 승리였다. 그것은 신의 신비스런 공포에 대한 승리일 뿐 아니라, 자연의 힘이 불러일으키는 경외감에 대한 승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성시되고 금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억압과 죄책감에 대한 승리였다. 그 승리는 곧 종교적 인간적 권력, 권위주의적 계율과 금기, 죽음과 사후의 징벌과 지옥처럼 지상보다도 두려운 모든 것들의 패배를 의미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 웃음은 인간의 의식을 정화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하였다. (중략)

사람들은 공포와 놀이를 벌이고, 그 공포를 조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의 대상은 ‘희극적인 괴물’이 된다. 이와 같은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추상적인 합리주의 정신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해석한다면 결코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미하일 바흐친,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중에서)

(나)

참을 수 없이 지나친 ‘엄숙함’의 분위기가 공식적인 중세문화의 특성이었다. 금욕주의, 음침한 섭리주의, 죄, 속죄, 고통 그리고 억압과 위협의 봉건제도를 포함한 중세 이데올로기의 내용들은 얼음같이 경직된 엄숙함의 분위기를 결정하였다. 엄숙함은 진리와 선 그리고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모든 것을 타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위기였다. 공포, 종교적 경외감, 비하 등은 이와 같은 엄숙함과 조화를 이루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미 웃음을 비난했다.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요한 크리소스톰은 고대의 구경거리들, 특히 무언극과 무언극의 조롱과 웃음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조롱과 웃음은 신이 아닌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로지 변치 않는 엄숙함 그리고 죄에 대한 참회와 슬픔만이 기독교인에게 적합하였다. (미하일 바흐친,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중에서)

(다)

(호르헤 수도사의 말) 웃음은 허약함, 부패, 우리 육신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농부의 여흥, 주정뱅이의 방종으로, 지혜로운 교회도 잔치와 카니발과 장터의 시간, 이처럼 유머를 방출하고 다른 욕망과 야망을 가시게 하는 하루의 타락을 허용하였소…… 그렇더라도 웃음은 여전히 천박한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옹호, 서민을 위해 타락한 신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웃음은 농노를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보제(祭)에서 악마 또한 가난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책(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것으로 가정되는 희극론)은 악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포도주가 목구멍에서 푹푹푹 하듯이 웃을 때 농노는 주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주인과의 관계를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 서책은 그 순간부터 학습 받은 사람에게 역전을 합리화할 슬기롭고 뛰어난 책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소화 작용의 수준에 머문 농노를 두뇌 작용을 하게끔 탈바꿈시킵니다. 웃음이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것은 우리 한계의 징표로, 우리가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처럼 타락한 많은 영혼들은 이 서책으로부터 웃음은 인간의 목적이란 그릴싸한 논법을 끌어옵니다. 웃음은 잠시 동안 농노들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공포, 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이 서책은 온 세상을 새롭게 불지를 수 있는 악마의 불꽃을 튀길 수 있으며, 웃음이 프로메테우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공포를 없애는 새로운 예술로 정의됩니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중에서)

(라)

(윌리엄 수도사의 말) ‘코메디’, 즉 ‘희극’이라는 말은 ‘코마이’, 즉 ‘시골 마을’이라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자면 희극이라는 것은 시골 마을에서 식사나 잔치 뒤에 벌어지는 흥겨운 여흥극인 셈이지요. 희극이란 유명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악하지는 않지만 천박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극은 보통 사람들의 약점과 악덕을 보여주어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달성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을 교훈적 가치가 있는 선(善)의 힘으로 봅니다. 희극은 마치 거짓말을 하듯 비록 사물들을 존재하는 방식과 상이하게 표현하지만, 재치 있는 수수께끼와 예기치 못한 은유를 통해 그것들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게 하여, “아, 실상은 이런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말하게 합니다. 희극은 사람과 세상을 본래보다 혹은 우리가 믿는 바보다 나쁜 것으로, 어떤 경우든 서사시와 비극에서 보여주었던 성인(聖人)보다 열등한 사람을 묘사하여 진실에 도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중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나는 공통된 경영 활동의 주제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500자)

(가)

스타벅스는 커피와 문화를 결합하여 커피에 관한 경험을 재창조한 회사이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가 된 하워드 쉘츠는 1982년 스타벅스에 합류했다가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했다. 그는 단순히 최고급 커피원두를 소매로 파는 가게였던 스타벅스를 ‘고객이 바리스타(barista)라 불리우는 매장 점원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스타벅스를 일구어냈다. 또한 존경과 품위, 다양성의 존중, 사회와 환경에 대한 공헌 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문화를 키워나감과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프라프치노 등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적시에 선보였다. 그 결과 1987년 당시 6개 스토어에 100여명의 사원이 있던 수준의 회사를 10년만에 2,000여 개의 스토어에 25,0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1992년에는 커피 판매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장기업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5조 3천억 원의 매출과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델은 1984년 창업과 함께 컴퓨터업계 최초로 제조업체가 제작한 컴퓨터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PC 판매는 생산자 중심의 관점에서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없이 생산하고 중간유통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델은 이러한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PC를 파악하고 맞춤형 PC를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창조한 것이다. 그 결과 1994년부터 7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37%를 기록하며 2001년에 세계 시장 1위의 사업자로 등극했다. 2004년에 델은 42조 6천억 원의 매출과 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AT 커니, 매일경제 Creative Korea 팀, 창조혁명 보고서)

(나)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자원에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자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식물은 식물 그 자체이고, 모든 광석은 돌덩어리 일 뿐이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땅에서 스며 나오는 원유도,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도 자원이 아니었다. 귀찮은 존재로서 토양을 망치기만 했다. 폐니실린 곰팡이도 한때는 자원이 아니라 병균일 뿐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폐니실린 곰팡이 ‘병균’이야말로 세균학자들이 찾던, 바로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임을 확인함으로써 폐니실린 곰팡이는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혁신인 것처럼 기존 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높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도록 하는 활동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J. B. 세이는 “기업가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곳으로부터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 시킨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혁신은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혁신은 기업가정신의 구체적인 기능인 것이다. 똑같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는 활동이 곧 혁신이라는 뜻으로 공급측면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적합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제철산업의 경우 종합제철공장에서 미니밀(mini-mill: 전기로)로 이동한 것은 공급측면에서의 혁신이다. 미니밀은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 설비가 필요 없다. 고철을 녹여 철강 빔이나 철근 같은 소비제품을 만들어낸다. 최종 제품도, 용도도, 고객도 똑같다. 그러나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즉 같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혁신인 것이다.

한편 혁신을 수요측면을 강조해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혁신은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느껴

온 가치와 만족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이포드(i-Pod) 또는 디지털 카메라는 기술혁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와 만족도를 높인 혁신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헨리 루스가 1920년대에 『타임』, 『라이프』, 『포천』 등을 창간하여 보여준 사회적 혁신이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개발된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유니버설보험상품(universal life insurance product)같은 금융상품의 성공적 혁신도 공급측면보다는 가치와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훨씬 설명하기 쉽다.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제시문 (나)와 (다)의 견해차가 생기는 이유를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800자)

(가)

정의란 무엇인가? 서양철학에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의는 아직도 형식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어 왔다. 그러나 각자의 몫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요청만으로는 정의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없다. 예컨대 회사 사장의 몫과 같은 회사 경비원의 몫은 각기 무엇인가? 이를 어떤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오늘날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자는 힘이 곧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정의란 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의를 사회질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는 사람들은 정당한 몫의 기준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효율성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나)

진리가 사상 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아무리 잘 만든 이론이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물리치거나 고쳐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쓸모 있고 번듯한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면 다시 짜거나 버려야 한다. 사회 전체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빌미로 정의를 어길 수 없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 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람들이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사회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관은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와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주장할 따름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의 문제점은 노예제도마저 찬성하는 극단적인 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적 이익은 월등한데 정치적 권리 행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의관을 고치고 다듬는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 원칙에서는 기본적 자유를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하는 것을 배제해야 마땅하다.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 사회 경제적 분배가 문제일 경우 사회계층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부정의가 모두 말소된 상태가 되더라도 삶의 전망의 차이가 두 계층 사이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의 원칙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줄일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다)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옳고, 그 반대에 기여하는 만큼 그르다. 여기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를 의미하고 불행은 쾌락이 없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옳음과 그름,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망하는 것, 즉 행복뿐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요구한다. 공리주의의 기준도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전체의 최대 행복이다. 공리주의 도덕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행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없는 희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공리주의가 인정하는 자기 포기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덕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라고 요구한다. 개인의 욕구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용인된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충돌할 경우 공리주의는, 개인에게 마치 불편부당한 제삼자처럼 됨으로써 자신의 행복보다 전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한다.

이 같은 요구는 다소 가혹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리주의의 금언과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행복의 총량만이 도덕의 기준이라는 전제를 수용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 LEVEL 3

### 예제1-병열구성형 31

다음 제시문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김구 선생의 글이다. 최근 들어 경제발전에는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들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에 나타난 견해들을 쟁점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하시오. (800자)

(가)

옛날에는 사치가 욕심에서 생겼는데, 후세에 와서는 사치가 풍속에서 생기고, 욕심이 사치에서 생겼다. ‘서경’에, "하늘이 사람을 낳았는데 누구나 욕심이 있다"고 했다. 욕심이란 눈,코,귀,입,사지의 바라는 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모두를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 물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옛 습관을 따르다 보면, 혹 분수에 지나쳐서 사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자신의 수레나 말, 의복이나 집, 음식 등이 다른 사람만 못하면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 자신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겉치레에 급급하여 오직 다른 사람만 못할까 두려워 한다. 가난한 선비가 집에서는 채소를 먹다가도 다른 사람을 대하면 성찬을 차려내는 것이나, 또 가난한 집 여자가 집 에 있을 때는 때묻은 옷을 입고 있다가도 손님을 맞이하면 성대하게 화장하는 것은 모두 겉 치레를 힘쓰는 풍속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바야흐로 문벌을 숭상하여, 높은 벼슬아치의 자식 들은 반드시 높은 벼슬아치가 되고, 재산으로 교만을 부리는 집에서 태어나면 죽어서도 재산으로 교만을 부리니,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져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비록 토지도 없고 녹봉도 없는 집안이라도 질박하고 검소한 것을 꺼려, 죽어도 이런 집과 더불어 사귀고 혼인을 맺어 반드시 그들에게 기대려고 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사치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물이 부족하면 온갖 계책으로 구하니, 거기에서 불의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리므로 사치는 풍속에서 생기고, 욕심은 사치에서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 중략 ..... 나라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다. 재물을 풍족하게 하려면 탐욕을 없애는 일만한 것이 없고, 탐욕을 그치게 하는 데는 검소함을 숭상하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검소함을 숭상하는 길은 또 어디에 있는 가? 현명한 사람을 먼저 등용하고 문벌을 가리지 말며, 재물을 만드는 일의 어려움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절을 지나가다가 종이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을 보았다. 이후로는 종이를 쓸때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 종이 만드는 일이 이렇진대 하 물며 농사짓는 일이나 베 짜는 일이야 어떻겠는가? (이익, '성호사설')

무릇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근본을 밝히는 것이지 말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일은 줄어들고 성과는 큼니다. 지금 얘기하는사람 치고 "사치가 나날이 심해진다"고 하 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을 모르는 말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다른 나 라는 정말로 사치 때문에 망했으나, 우리 나라는 검소함으로써 쇠약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늬 있는 비단 옷을 입지 않으니 나라 안에 비단 짜는 기계가 없고, 그렇게 되니 여공 (길쌈이나 베짜기 등의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숭상하지 않으니, 오음과 육률이 화합하지 못합니다.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씻기지도 않은 말을 타며, 이지러진 그릇에 밥을 먹고, 흙먼지나는 방에서 거처하니, 물건 만드는 일이나 목축업 또는 질그릇 굽는 일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황폐해져 그 법을 잃었고, 장사는 이익이 적어서 그 업을 잃었 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곤궁하여 서로 도울 수 없게 되니, 저들 가난한 사람들을 비록 매일 같이 사치하라고 다그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거행하는 대궐의 뜰에 거적 을 깔았고, 동서 대궐문을 지키는 위병은 무명옷을 입고 새끼줄을 매

고 있으니, 신은 이것이 진실로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책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일반인의 집 대문이 높으면 헐어버리고, 가족신을 신은 평민은 잡아가며, 말몰이꾼이 좋은 방한모를 쓴 것을 좋아 하지 않으니, 이것은 말단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박제가, `북학의`)

(나)

백성들의 작은 의견은 이해관계로 결정되거나, 큰 의견은 그 국민성과 신앙과 철학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생긴다.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이고,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철학의 기초 위에, 어떠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국민교육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에 해가 된다. 인류 전체를 보아도 그러하다. (중략)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할 민족은 일언이 폐지하면, 모두 성인을 만드는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 데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김구, `나의소원`)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시오.

유신(維新)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자손이다. 파괴란 무엇인가? 유신의 어머니다. 세상에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개 말들을 할 줄 알지만, 파괴 없는 유신이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파괴라고 해서 모두를 무너뜨려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습(舊習)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을 고쳐서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뿐이니, 이름은 파괴이지만 사 실은 파괴가 아니며, 유신을 잘 할수록 파괴도 잘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 큰 종기를 앓아 의사에게 보여 치료를 받는다고 하자. 대강 침술과 뜸질을 가하여 겉으로 그 피부만 아물게 하고 근원은 제거하지 않은 채 임시적 효과나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은 용렬한 의사이다.

명의(名醫)는 그렇지 않다. 군살을 잘라내고 엉겨있는 피를 빼어, 그 독을 제거하고 그 병의 근원을 뽑아낸 다음, 증세를 살펴 약을 투여하여 점차 완전히 아물도록 해서, 환자로 하여금 애초에 종기를 앓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든다.

파괴란 살을 잘라내고 피를 빼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유신을 도모함에 마땅히 먼저 파괴를 앞세워야 함은 의사가 먼저 군살을 잘라내고 피를 빼는 것과 같다.

위의 제시문은 대한제국이 무너진 1910년 한용운이 쓴 '조선불교유신론'의 일부이다.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해 <예시자료 1-4>를 활용해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예시자료 1>

주인과 나그네가 한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方),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白)주사.

"내 참, 이래봐두, 응, 동양삼국 물 다 먹어본 방삼복이우. 청얼(淸語) 못허나, 일얼 못허나, 영어야 뭐 말할 것두 없구..."

'흥,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안 놈'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미씨다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어서는 가진 호강 다 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코 빼뿔이 삼복이의 이 눈부신 발신은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 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몰려다니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半日)을 궁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노예도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미국 장교 하나가,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담뱃대장수 영감은, 삼십 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미국 장교는 알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취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고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원" 하여 주었다. 핵 돌려보더니 "오, 캔유 시피크?"

하면서, 사뭇 그를 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라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장수 코빼뜰이 삼복은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꽤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들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홀륭하여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올라오기는 S소위 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채만식, '미스터 방'에서)

#### <예시자료 2>

민주주의의 이상은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평등한 대우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했던 19세기를 '민주주의의 세기'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세기의 이상(理想)이 되었고,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승리를 얻고부터 민주주의의 신념에 회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빈곤과 궁핍과 자본주의제도에 포함되는 많은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주린 배를 움켜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해 본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의 투표, 그의 노력이 그의 식비(食費)와 맞바뀌져 팔린다면 도대체 그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민중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용은 떨어지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란 자유의 정치적 일면이다. 그것은 전제정치로 인한 압제에 대한 반발작용이었기 때문에 새로 제기된 산업사회의 문제, 즉 빈곤이나 계급 투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주지 못했다.

산업자본주의의 가장 큰 난점은 노동을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에겐 작은 대가밖에 오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을 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과 보수의 상관관계는 멀어져서 그 결과로 한쪽에는 가난한 노동계급이 생기고 다른 쪽에선 남이 생산해 놓은 부를 가로채는 기생계급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마치 밭에 나가 일하는 소작인과 일하지 않고 소작인의 노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지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 노동성과의 분배방법이 불공정한 것은 명백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공장 문을 두드렸고,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의 보수를 위해 공장에서 피땀을 흘려야했다. 그러나 고용주 측에서는 양보도 대우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여 세계시장을 확보하려고 기를 썼으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네루 '세계사편력'에서)

#### <예시자료 3>

안드레아 : 왜 선생님의 학설을 철회하셨나요?

갈릴레오 : 나는 육체적 고통이 겁이 나서 철회한 걸세. 그자들이 내게 고문도구를 보여주었지.

안드레아 :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지요! 인간적인 약점은 학문과 무관한 겁니다.

갈릴레오 : 무관하다구? 사랑하는 제자 안드레아. 충분히 주어진 시간 동안 나의 경우를 철저히



검토해 보고, 학문의 세계가 나의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학문을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각별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자네들은 무엇 때문에 일하나? 학문의 유일한 목표는 인간 현존의 노고를 덜어주는 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만일 과학자들이 이기적 권력자 앞에 위축되어 오로지 지식을 위한 지식을 쌓는 데 만족한다면, 학문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테고, 자네들이 만든 기계들도 단지 새로운 애플단지가 될 따름이네. 자네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발견 가능한 모든 것을 발견해낼 수 있겠지만, 자네들의 진보는 인류로부터 동떨어져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될 걸세.

안드레아. 내가 만약 저항을 했더라면, 자연과학자들도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테지- 자신들의 지식을 오로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만 적용한다는 맹세 말일세! 그러나, 결국 나는 내 지식을 권력자들에게 양도했네. 완전히 그들의 목적에 맞게끔, 그 지식을 사용하든 말든, 또는 잘못 사용하라고 말일세.

(갈릴레오의 딸 비르기니아가 들어온다)

갈릴레오 : 나는 내 천직을 배반했네. 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인간은 학문대열에서는 용납될 수 없어. 이제 그만 작별하세.

(안드레아가 그에게 손을 내민다. 갈릴레오는 그 손을 바라볼 뿐, 악수하지는 않는다)

갈릴레오 : 이제 자네 스스로가 스승이네. 나 같은 놈의 손을 잡을 생각하지 말게. (브레히트, '갈릴레오의 생애'에서)

#### 〈예시자료 4〉

정역살이에서 느끼는 불행 중의 하나가 한 발 걸음이라는 외로운 보행입니다. 실천과 인식이라는 두 개의 다리 중에서 '실천의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천 활동을 통하여 외계의 사물과 접촉함으로써 인식을 가지게 되며, 이를 다시 실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진리성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실천은 인식의 원천인 동시에 그 진리성의 기준이라 합니다.

이처럼 '실천.인식.재실천.재인식'의 과정이 반복되어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인식도 감성적 인식에서 이성적 인식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실천이 없다는 사실은 거의 결정적인 의미를 띠입니다.

그것은 곧 인식의 좌절, 사고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고, 발전하지 못하는 생물이 녹슬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이렇 많이 일굴수록 쟁기 날은 빛나고, 흐르는 물은 바다를 만난다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재확인이었습시다만, 이것이 제게 갖는 뜻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이란 반드시 극적 구조를 갖춘 큰 규모의 일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혼전만전 널려 있다는 제법 익은 듯한 생각을 가져 보기도합니다.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걸음걸이로 저마다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겠지만, 땅을 박차서 땅을 얻든, 그 위에 쓰러져 그것을 얻든, 죽어서 땅속에 묻히기까지는 거대한 실천의 대륙 위를 걸어가기 마련이라 생각됩니다.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제시문 (가)와 (나)의 비판하는 관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적으시오. (500자)

(가)

천하에 두려워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물.불.범.표범보다 두렵기가 더한데, 위에 있는 자가 한창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림은 무엇인가. 대저 이룩된 것만 함께 즐거워하면서, 항상 보는 것에 얽매이고, 그냥 따라서 법을 받들면서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자는 항민(恒民)이다. 항민은 두렵지 않다. 모질게 빼앗겨서 살이 발겨지고, 뺨골이 뿔쳐지며, 집에 들어온 것과 땅에서 나온 것을 다 내어서 한없는 요구에 제공하면서, 시름하고 탄식하여 윗사람을 탓하는 자는 원민(怨民)이다. 그러나 원민도 반드시 두렵지 않다.

자취를 고깃간에 숨기고 남모르게 탄 마음을 쌓아서, 천지간을 결눈질하다가 혹여 그때에 사고라도 있으면 그 원(願)을 부리고자 하는 자는 호민(豪民)이다. 대저 호민은 크게 두렵다. 호민은 나라의 사단을 엿보다가 탈 만한 때를 노려서, 팔을 떨치며 발두렁 위에서 한번 소리를 높여 부르면 저 원민들이 소리만 듣고도 모여서, 모의하지 않아도 외치는 것은 같아진다. 항민들도 또한 살기를 구해서 호미와 고무래.창자루를 가지고 따라가서 무도한 자를 죽이게 된다.

진(秦)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陳勝).오광(吳廣) 때문이고, 한(漢)나라가 어지러워진 것도 황건적(黃巾賊)이 원인이었다. 당나라도 왕선지(王仙芝)와 황소(黃巢)가 틈을 타서 난을 꾸몄는데 끝내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것은 모두 백성을 모질게 해서 제 몸을 봉양한 죄과이며, 호민이 그 틈을 타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대저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기르기 위함이고, 한 사람에게 방자하게 흘겨보며 구렁 같은 욕심을 부리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런즉 저 진.한 이래의 화란은 마땅한 일이며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땅이 비좁고 사람이 적으며, 백성이 또 가난하고 좁스러워서, 기이한 절개와 지조와 호방한 기개가 없다. 까닭으로, 평시에 위대한 사람이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쓰임이 되는 일도 없지마는, 난리를 당해도 또한 호민과 한졸(悍卒)이 어지럽게 외치며 앞장서서, 나라의 걱정이 되는 자도 없으니 그 또한 다행이다.

비록 그러나 지금은 왕씨 때와 같지 않다. 고려 때는 백성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기준이 있었고, 산택에서 나오는 이익도 백성과 함께 하였다. 상업이 유통되고 공장(工匠)에게도 혜택이 있었다. 또 능히 수입을 요량해서 지출했으므로 나라에 남은 저축이 있었다. 그리하여 갑작스럽게 큰 병란이나 상사가 있어도 백성은 그 일에 대한 부세를 알지 못하는데 말기에 와서는 3공(空)을 염려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변변치 못한 백성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신을 섬기고 윗사람을 받드는 범절은 중국과 같다. 백성이 내는 부세가 다섯이면 관청에 돌아오는 것은 겨우 한 몫이고, 그 나머지는 간사한 자에게 어지럽게 흠여진다. 또 남은 저축이 없어 사고라도 있으면, 1년에 혹 두 번도 부과하는데, 수령이 그것을 빙자하고 덧붙여 거두어서 다함이 없다. 까닭에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왕씨의 말기보다 심함이 있다. 그러하건만 위에 있는 사람은 태평스레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에는 호민이 없다” 한다. 불행하게도 견훤(甄萱).궁예(弓裔) 같은 자가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르면, 시름하고 원망하던 백성이 가서 따르지 않을 줄을 어찌 보증하며, 기주(蔚州).양주(梁州)와 6합(合)의 변은 발을 추켜 디디고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민목(民牧)으로 된 자는 두려울 만한 형세를 밝게 알고, 시위와 바퀴를 고차면 그래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허균, 호민론(豪民論))

3공 : 흥년이 들어서, 祠堂에 제사를 못 지내고, 서당에 학생이 없게 되고, 뜰에는 개가 없게 된다는 것.

6합 : 당(唐) 희종(僖宗) 때에 황소(黃巢)가 난을 꾸몄던 일.

(나)

조선국 세종대왕 즉위 십오 년에 홍화문 밖에 한 재상이 있되, 성은 홍이요, 명은 문이니, 위인이 청렴강직하여 덕망이 거룩하니 당세의 영웅이라. 일찍 용문에 올라 벼슬이 한림에 처하였더니 명망이 조정의 으뜸되매, 전하 그 덕망을 숭이 여기서 벼슬을 돋우어 이조판서로 좌의정을 하이시니, 승상이 국은을 감동하여 갈충보국하니 사방에 일이 없고 도적이 없으며 시화연풍하여 나라가 태평하더라. (중략) 이때에 길동이 집을 떠나 사방으로 주류하더니, 일일은 한 곳에 이르니 만첩산장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는 중에 햇빛은 세양이 되고 인가 또한 없으니 진퇴유곡이라. 바야흐로 주저하더니, 한 곳을 바라보니 괴이한 표자 시냇물을 쫓아 떠오거늘, 인가 있는 줄 짐작하고 시냇물을 쫓아 수리를 들어가니, 산천이 열린 곳에 수백 인가 즐비하거늘, 길동이 그 촌중에 들어가니, 한 곳에 수백 인이 모여 잔치를 배설하고 배반이 낭자한대 공론이 분운하더라.

원래 차촌은 적굴이라. 이날 마침 장수를 정하려 하고 공론이 분운하더니 길동 이 말을 듣고 내념에 헤아리되, “내 지쳐없는 처지로 위연이 이곳에 당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하늘이 지시하심이로다. 몸을 독립에 붙여 남아의 지기를 펴리라.” 하고 좌중에 나아가 성명을 통하여 왈, “나는 경성 홍승상의 아자로서 사람을 죽이고 망명도주하여 사방에 주류하옵더니, 오늘날 하늘이 지시하사 위연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독립호걸의 으뜸 장수됨이 어떠하뇨?”

하며 자청하니, 좌중제인이 이때 술이 취하여 바야흐로 공론 달난하더니, 불의에 난데없는 총각아 이 들어와 자청하매 서로 돌아보며 꾸짖어 왈,

“우리 수백 인이 다 절인지력을 가졌으되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할 이 없어 유예미결하거니와, 너는 어떠한 아이로서 감히 우리 연석에 돌입하여 언사 이렇듯이 괴망하뇨? 인명을 생각하여 살려 보내니 급히 돌아가라.”

하고 등 밀어 내치거늘, 길동이 돌문 밖에 나와 큰 나무를 꺾어 글을 쓰되, “용이 얇은 물에 잠기어 있으니 어별이 침노하며, 범이 깊은 수풀을 잃으며 여우와 토끼의 조롱을 보는도다.” 하였더니, 한 군사 그 글을 등서하여 좌중에 드리니, 상좌의 한 사람이 그 글을 보다가 여러 사람에게 청하여 왈,

“그 아이 거동이 비범할 뿐 아니라, 더욱이 홍승상의 자제라 하니 수자를 청하여 그 재주를 시험한 후에 처치함이 해롭지 아니하다.”

하니, 좌중제인이 응낙하여 즉시 길동을 청하여 좌상에 앉히고 이르되,

“즉금 우리 의논이 두 가지라. 하나는 이 앞의 초부석이라 하는 돌이 있으니 중이 천여근이라 좌중에서는 용이케 들 사람이 없고, 둘은 경상도 합천 해인사에 누거만재이나 수도중이 수천 명이라 그 절을 치고 재물을 앗을 모책이 없는지라. 수자가 이 두 가지를 능히 행하면 오늘부터 장수를 봉하리라.”

하거늘,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웃어 왈,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마땅히 상통천문하고, 부찰지리하고, 중찰인의할지라. 어찌 이만 일을 겁하리요.”

하고, 즉시 팔을 걷고 그 곳에 나아가 초부석을 들어 팔 위에 얹고 수십 보를 행하다가 도로 그 자리에 놓으되 일본 겨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대찬 왈,

“실로 장사로다!”

하고, 상좌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장수라 일컬어 치하 분부하는지라. 길동이 군사를 명하여 백마를 잡아 피를 마셔 맹세할새 제군에게 호령 왈,

“우리 수백 인이 오늘부터 사생고락을 한가지로 할지니 만일 약속을 배반하고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니, 제군이 일시에 청령하고 즐기더라. (중략) 일일은 길동이 제적을 불러 의논 왈,

“우리 비록 독립에 몸을 붙였으나 다 나라 백성이라. 세대로 나라 수토를 먹으니 만일 위태한 시

절을 당하면 마땅히 시석을 무릅쓰고 인군을 도울지니 어찌 병법을 힘쓰지 아니하리요? 이제 군기를 도모할 모책이 있으니, 아무날 함경감영 남문 밖의 능소 근처에 시초를 수운하였다가 그날 밤 삼경에 불을 놓으되 능소에는 범치 못하게 하라. 나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려 감영에 들어가 군기와 창고를 탈취하리라.”

약속을 정한 후에 기약한 날에 군사를 두 초로 나누어 한 초는 시초를 수운하라 하고, 또 한 초는 길동이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삼경이 되매 능소 근처에 화광이 등천하였거늘, 길동이 급히 들어가 관문을 두드리며 소리하되,

“능소에 불이 났사오니 급히 구원하옵소서.”

감사 잠결에 대경하여 나와서 보니 과연 화광이 창천한지라. 하인을 거느리고 나가며, 일변 군사를 조발하니 성중이 물 끓는 듯 하는지라. 백성들도 다 능소에 가고 성중이 공허하여 노약자만 남았는지라. 길동이 제적을 거느리고 일시에 달려들어 창곡과 군기를 도적하여 가지고 축지법을 행하여 순식에 동중으로 돌아오니라.

이때에 감사 불을 구하고 돌아오니 창곡 지킨 군사 아뢰되,

“도적이 들어와 창고를 열고 군기와 곡식을 도적하여 갔나이다.”

하거늘, 크게 놀래어 사방으로 군사를 발포하여 수탐하되 형적이 없는지라. 변괴인 줄 알고 이 연유를 나라에 주문하니라.

이날 밤에 길동이 동중에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왈,

“우리 이제는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탈취지 말고, 각 읍 수령과 방백의 준민고택하는 재물을 노략하여 혹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지니, 이 동호를 ‘활빈당’이라 하리라.” (중략)

상이 진로하사 꾸짖어 가라사대,

“네 무고한 재물은 취치 아니했다 하면, 함천사 중을 속이고 그 재물을 도적하고, 또 능소에 불을 놓고 군기를 도적하니, 이만 큰 죄 또 어디 있느냐?”

길동 등이 복주 왈,

“불도라 하옵는 것이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혹하게 하여, 갇지 아니하고 백성의 곡식을 취하며, 짜지 아니하고 백성의 의복을 속여 부모의 발부를 상하여 오랑캐 모양을 숭상하며, 군부를 버리고 부세를 도망하오니 이에 더한 불의지사 없사오며, 군기를 가져가옵기는 신 등이 산중에 처하여 병법을 익히다가 만일 난세를 당하옵거든 시석을 무릅써 임금을 도와 태평을 이루고자 함이오며, 불을 놓으되 능소에는 아니가게 하였사오며, 신의 아버 세대로 국록을 받자와 갈충보국하여 성은을 만분지일이라도 갚지 못할까 하옵거늘 신이 어찌 외람되이 범람한 마음을 두오리까? 죄를 의논하여도 죽기에 가지 아니할 터이로되, 전하께서 조신의 무소를 들으시고 이렇듯이 진로하시니 신이 형벌을 기다리지 아니하옵고 먼저 스스로 죽사오니 노를 더옵소서.” (중략)

미재라! 길동의 행어사여! 쾌달한 장부로다. 비록 천생이나 직원을 풀어 버리고, 효우를 완전히하여 신수를 쾌달하니 만고에 희한한 일이기로 후인이 알게한 바이러라. (허균, 홍길동전 완판본)

아래의 제시문 (나), (다), (라), (마)에는, (가)에 나타나 있는 과학발전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논거가 들어있다. 이 논거를 적절히 활용하여 과학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자)

(가)

18세기와 19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자연에 관한 여러 불변의 법칙들-뉴턴의 운동법칙, 중력의 법칙, 보일의 법칙, 진화의 법칙 등등-이 발견되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였고, 과학자의 직무는 관찰된 사실로부터 귀납적인 추론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불변의 법칙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법칙’이라는 용어는 구름의 꼬리처럼 영광스러운 흔적을 길게 남기면서 갈릴레이와 뉴턴에게서 전해내려 왔다.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연구가 과학적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였고, 자기들도 과학에서와 똑같은 객관적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다. 예컨대 버클은 그의 『문명사』 결론에서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는 ‘보편적이고 일관된 규칙성’이라는 영광스런 원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나)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리적 인접 단위이며 적대적·우호적 관계를 다 같이 포함한 역사적 경험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장임은 분명하다……월남은 지리적으로는 몽고, 티베트처럼 주변에 위치하였으나 ‘동아시아 질서’에의 참여 면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오늘날 적지 않은 역사서가 동아시아사를 논할 때 월남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월남을 동아시아의 틀 속에 넣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동남아시아’는 정치적·문화적 실체가 아닌 2차대전 후 편의적 개념으로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연대의 실효를 거두어가고 있는 새로 태동하고 있는 질서인데 월남은 앞으로 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 예로 보건대 지난날의 문화적·정치적 질서는 앞으로의 동아시아적 질서를 구성하는 데 필요조건일 수는 없다. 월남이 현실의 필요에 따라 또 앞으로 지향에 맞추어 동남아에 속하듯, 동아시아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에 맞추어 미래의 질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날의 역사적 경험의 공유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질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앞으로의 동아시아 질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는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과제가 아니지만, 지난 날의 역사 경험의 분석을 통해 평등한, 그것도 형식상의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라야 한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다)

현대의 컴퓨터는 컴퓨터와 파일 캐비닛 사이의 유사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는 그것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파일을 보관하는 캐비닛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컴퓨터는 기계이지 가구가 아니다. 파일 캐비닛이라는 은유가 우리를 붙잡아서 정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대신 소극적으로 하도록 만든다. 당신이 맥이나 PC에 잔뜩 만들어서 쌓아 놓은 엄격한 파일-디렉터리 시스템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머들을 위해 고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여전히 매우 쓸모가 있는 시스템이지만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으며, 그리고 원래 일반인들에게 유용하도록 고안되지도 않았다.

당신이 만일 애완견 세 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어라. 하지만 1만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면 일일이 이름을 붙이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에 이름을 붙인다는 오늘날의 생각은 정말로 터무니가 없다.

(라)

물론 엄청난 도덕적 압력도 있다.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십억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 발전을 통하여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암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암으로부터 구원해 줄 대단한 발전을 이룩하기 직전에 와 있긴 하지만 어쩌면 테러리스트들이 그 지식을 이용하여 생물공학적인 병원균을 만들어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조치에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거대한 믿음이 있다. 물론 이런 기술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나는 이와 같은 위험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내 생각에 그것은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할 첫 번째 도전이다.

(마)

‘식물 인간’을 위한 안락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자신이 식물 인간이 되면, 사람다운 위엄을 지닌 채 죽겠다는 희망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안락사는 물론 고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병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뒤에도 기계의 힘을 빌어서 최소한의 육체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이 나오고 사회가 그런 기술을 쓸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자,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금 논의의 초점은 예전의 안락사처럼 일부러 사람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어서 역지로 연명시키는 일을 그만두는 행위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는 목숨이나 의술과 같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사회적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런 성찰은 어렵고, 시민들이 그런 성찰의 결과에 대해 합의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에서 가장 돈 되는 말은 'I am sorry(미안합니다)'"

미국에서 'I am sorry'라고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다는 '이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은 최근 7천5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pm 1.1\%$ ),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연간 2만5천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층보다 2배 정도 사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온라인 보석판매업체인 '더 펄 아울렛(The Pearl Outlet)'은 많은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진주를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사과하느냐'는 질문에 연봉을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자 가운데 92%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7만5천~10만 달러 소득자는 89%, 5만~7만5천 달러 소득자는 84%, 3만5천~5만 달러 소득자는 72%, 2만5천~3만5천 달러 소득자는 76%, 2만5천 달러 이하 소득자는 52%만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과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

또 '자신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사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 가운데 22%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2만5천 달러 이하 소득자는 단지 13%만이 '그렇다'고 답변,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2만5천 달러 이하 빈곤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사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컨설턴트 피터 쇼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다른 전문가인 마티 넴코는 "고소득자들은 더 총명하고 자신을 더 안전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게 자신의 경력에 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과를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더 펄 아울렛의 테리 셰퍼드 사장은 "고소득자일수록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사후에 사과하는 게 쉽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과를 하고 사전에 허락을 덜 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의 결론은 많이 벌고 싶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결혼한 사람이 싱글이나 이혼자보다 타인과 다투고 난 뒤 두 배 정도 사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그비 인터내셔널은 밝혔다.

'미안하다'는 말이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비결이라는 점도 아울러 확인된 것이다. (연합뉴스)

위 글에서 조사된 자료에 관한 세 가지 설명들을 지적하고, 어떤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 LEVEL 4

### 예제1-병열구성형 36

다음 상황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세 인물(기자 랑베르, 신부 파늘루, 의사 리유)이 각각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을 정리하시오. (500자)

<상황>

며칠이 지나자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죽은 쥐들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갔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쥐들은 때를 지어 거리에 나와 죽었다. 집안의 구석진 곳으로부터, 지하실로부터, 지하 창고로부터, 수챗구멍으로부터 쥐들은 때를 지어 비틀거리면서 기어 나와서는 햇빛을 보면 어지러운지 휘청거리고, 제자리에서 맴을 돌다가 사람들 곁에 와서 죽어 버리는 것이었다. 밤이면 복도나 골목길에서 그놈들이 짹짹거리며 마지막 작은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중략)... 마치 건강한 사람의 질은 피가 돌던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지껏 그렇게도 고요하기만 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발각 뒤집혀 버린 이 자그마한 도시의 아연실색함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상상만이라도 해보라! (중략)

갑자기 병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사망자의 수가 다시 30명으로 늘어난 날, 리유는 전보 공문을 받았다. 전보에는 <페스트 사태를 선포하고 도시를 폐쇄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그 때부터 페스트는 우리들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그때까지는 그 이상한 사건들로 인한 충격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오랑 시민들은 각자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맡은 자리에서 그럭저럭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그 상태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오랑 시의 문들이 폐쇄되자 그들은 한 독 안에든 쥐가 되었으며 거기에 그냥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개인적인 감정도 처음 몇 주일부터 당장 모든 사람들 전체의 감정이 되었고, 공포심이 가세하면서 저 오랜 귀양살이 시절의 주된 고통거리가 되었다.

(가)

랑베르는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파리에 아내를 두고 온 것이었다. 정식 아내는 아니었지만 아내나 마찬가지였다. 시가 폐쇄되자 그는 곧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며 하고 편지 왕래나 할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랑의 동료 기자들은 자기들로서는 아무 방도가 없다고 말했고, 우체국에서는 상대도 하지 않았고, 도청의 한 여자 서기는 그에게 콧방귀를 끼었다. 마침내 그는 두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만사 순조로움. 곧 다시 봅시다.>라고 쓴 전보를 한 장 접수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얼마 동안이나 이 사태가 계속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개장을 갖고 있었으므로 도청의 비서실장과 접촉할 수 있었다(직업이 기자이고 보니 여러가지 편의가 있었다). 자기는 오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일도 없고, 우연히 자기는 여기에 있게 되었고, 일단 나가서 격리 수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퇴거를 허가해 주는 일이 마땅하리라고 그에게 말했다.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서, 잘 알아듣겠으나 예외를 만들 수는 없다, 검토는 해 보겠지만 요는 사태가 중대한 만큼 선뜻 어떤 결정도 내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랑베르는 말했다. "나는 이 도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염병이 오래 가지 않기를 피차에 바랄 뿐입니다"

결국 그는 랑베르를 위로하면서, 오랑에서 흥미있는 기사거리를 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무슨 일이건 간에 잘 살펴보면 반드시 좋은 면이 있는 법이라고 말해 주었다. 랑베르는 어깨를 으쓱치켜 올렸다. 그들은 시가의 중심지에 도착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사를 쓰려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떤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 쪽이 더 어울리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쨌든 그 쪽이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아 보인다고 리유는 말했다. (중략)

"이건 그야말로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러한 이별이 어떤 건지를 아마 선생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리유는 금방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랑베르가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시 결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이지만, 포고와 범람이 있고 페스트가 있으니, 자기의 역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지요." 입맛이 쓰다는 듯이 랑베르는 말했다. "선생은 이해하지 못해요. 선생님 말씀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선생님은 추상적이십니다." (중략)

"아! 알겠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공적인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공공 복지도 개개인의 행복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나)

그 달 말경에, 우리 시의 고위 성직자 측에서는 집단 기도 주간을 설정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방법으로 페스트와 싸우기로 결정했다. 대중 신앙심의 표시가 담긴 이 행사는 일요일에 페스트에 걸렸던 성(聖) 루카에게 드리는 장엄한 미사로 끝맺기로 되어 있었다. 그 기회에 파늘루 신부는 강론을 위촉받았던 것이다. (중략)

"오늘 페스트가 우리에게 닥쳐온 것은 반성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 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가차없는 재앙은 질과 난알을 가리기 위해서 인류라는 밀을 타작할 것입니다. 난알보다는 질이 더 많을 것이며, 선민들보다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하느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악과 타협해 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성스러운 자비 위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써 충분했고 모든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회개를 하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는 가장 쉬운 길은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밖의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 연민의 얼굴을 보여 주시던 하느님께서도, 기다림에 지치고 실망하시어, 마침내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광명을 잃고 우리는 바야흐로 오랫동안 페스트의 암흑 속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 (중략)...

"그렇습니다. 반성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하느님을 찾아뵙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너 번 무릎을 꿇는 것으로 여러분의 그 죄스러운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하느님께 갚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미지근하지는 않으십니다. 것처럼 드문드문 찾아뵙는 관계 정도로는 하느님의 넘쳐흐르는 애정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더 오래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방식이며, 그것만이 유일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이 찾아뵙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치신 하느님은, 인류가 역사를 가진 이래 재앙이 죄 많은 모든 도시를 찾아들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들게 하신 것입니다. 카인과 그 자손들이,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애굽의 왕과 읍, 그리고 또한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듯이, 이제 여러분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여러분과 재앙을 벽으로 둘러싸고 가두어 버린 그 날부터, 여러분은 그네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새로운 눈으로 모든 존재와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야, 마침내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중략)...

"우리가 좀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모든 고민 속에 가로놓인 저 영생의 황홀한 빛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고하게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신의 뜻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다시, 죽음과 고뇌와 아우성의 길을 통해서, 그 빛은 우리들을 본질적인 침묵으로 이끌어 가며,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광대무변한 위안입니다. 이 위안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응징의 언사를 듣고 돌아가시는 데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을 진정시키는 '말씀'도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도 선생님은 파늘루 신부처럼 페스트에도 그 것대로의 유익한 점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한다고 여기고 계시겠죠!"

리유는 답답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있는 것은 페스트에도 역시 있습니다. 하기가 몇몇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구실도 하겠죠. 그러나 그 병으로 해서 겪는 참상과 고통을 볼 때, 체념하고서 페스트를 용인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눈먼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의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유는 어조를 높였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타루는 그를 진정시키려는 듯이 손을 저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면서 리유가 말했다. "한데, 내가 아까 한 말에 대해 아직 대답을 안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셨나요?"

타루는 안락의자에서 좀 편안하게 고쳐 앉으면서 머리를 불빛 속으로 내밀었다.

"선생님은 신을 믿으시나요?"

질문은 역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리유가 망설였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어둠 속에 있고, 거기서 뚜렷이 보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것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됩니다."

"좋아요." 타루가 말했다. "선생님 자신은 신도 믿지 않으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십니까? 선생님의 답변이 제가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서 얼굴을 내밀지도 않은 채 의사는, 그 대답은 이미 했으며, 만약 어떤 전능한 신을 믿는다면 자기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그만두고 그런 수고는 신에게 맡겨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파늘루까지도 그런 식으로 신을 믿는 이는 없는데, 그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며,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리유 자신도 이미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거부하며 투쟁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 타루가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대충은 그렇습니다." 의사는 다시 밝은 쪽으로 몸을 내밀면서 말했다.

타루는 나직이 휘파람을 불었고 의사는 그를 보았다.

"그럼요." 그는 말했다. "아마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최소한의 자존심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일들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당장에는 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반성할 것이고, 또 나도 반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일은 그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뿐이지요." ... (중략)...

"내가 이 직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말하자면 그냥 막연히 택했지요. 직업이 필요했었고, 딴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팬찮은 직업이었고, 젊은 사람이 한 번 해볼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 어쩌면 나 같은 노동자의 자식으로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택하고 났더니 죽는 장면을 보아야만 했지요.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어떤 여

자가 죽는 순간에 '안돼!' 하고 외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나요? 나는 있어요. 그때 나는 절대로 그런 것에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때는 나도 젊었고, 해서 나의 혐오감은 세계의 질서 그 자체에 대하여 솟구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후 나는 한층 더 견뎌내었어요. 다만, 죽는 것을 보는 일에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못한 채로요. 그 이상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리유는 입을 다물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입안이 마른 듯싶었다.

"결국은요?" 하고 타루가 나직하게 물었다.

"결국....." 의사는 말을 계속하려다가 타루를 물끄러미 보면서 또 주저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나 세계의 질서는 죽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니 만큼, 아마 신으로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 주지 않는 편이 더 낫고, 신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하늘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음과 싸워 주기를 더 바랄지도 모릅니다.



아래 제시문을 바탕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선택할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지식 기반 사회 구축에 있어 '지식'은 어떠한 것이라야 하는지 정리하시오. (500자)

(가)

세계 경제는 바야흐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 지워지던 산업경제 사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 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경영인 그리고 경영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

기초과학기술이나 경제 경영이론과 같은 학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기술특허,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실용적 지식과 각 근로자나 기업가가 갖고 있는 작업상의 노하우, 고객서비스 방법, 경영지식 등을 우리 모두 공유·활용해 지식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은 항상 자신의 일을 개발, 개선, 혁신해 부가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인터넷과 외국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업과 경영자는 지식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이를 실천에 옮겨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경영학자에게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지식경영 연구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자세로 기업의 지식경영 도입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대환, '전국 경영학자 통합학술대회(1999. 8. 20)' 기조연설문)

(나)

오늘날 인류가 각별히 과학 기술 때문에 처하게 된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물 현상을 부분적이고 단편적 시각에서 보는 습관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상호간의 관련 속에서 총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세운 목적의 의미를 항상 반성하고 재검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능력 없이는 그릇된 가치를 추구하고 잘못된 목적을 세워 그런 목적을 위해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중략)

인문 과학, 오로지 인문 과학이야말로 반성적 사고의 결실이며, 부단히 사물 현상, 우리들의 활동, 우리들이 언제나 선택해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 등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반성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수정 혹은 보완해서 새로운 가치를 시험하고 창조하는 마당이다. (중략)

과학적 지식은 물론 모든 지식이, 인간 이 선택한 가치와 궁극적으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상기할 때, 그리고 모든 이른바 과학적 기술 발달이 어떤 성질의 목적을 전제함으로써만 결정되고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때, 위와 같은 기능과 내용을 가진 인문 과학의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특히 긍정적이기도 하며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양면의 힘을 잠재적으로 발휘하는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박이문,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제시문 (가), (나)를 참고로 하여, 올바른 인재 등용의 방법을 제시하시오. (800자)

(가)

나라를 경영하는 자와, 함께 천직(天職)을 다스릴 자는 인재가 아니면 될 수 없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원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재를 내는 것은 고귀한 집이라 하여 그 부명(賦命)을 넉넉하게 하지 않고 미천한 집이라 하여 그 품부를 아끼지 않는다. 까닭에 옛날 현명한 임금은 그런 줄을 알고 인재를 초야에서도 구했으며, 혹 군인 중에서 뽑았고, 혹은 패전하여 항복한 적장을 발탁하기도 하였다. 혹은 도둑 무리를 들어올리고, 혹은 고지기를 등용하였다. 쓴 것이 다 알맞았고 쓰임을 당한자도 각자 가진 재주를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다스림이 날로 높아진 것은 이 방법을 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큼으로써도 그 인재를 혹 빠뜨릴까 오히려 염려하였다. 근심해서 옆으로 앉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에도 탄식하였다.

그런데 어찌해서 산림과 초택에 포부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흔하게 있으며, 영결찬 인재로서 낮은 자리에 침체해서 그 포부를 끝내 시험하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는 것인가. 참으로 인재를 죄다 구하기 어렵고, 다 쓰기도 또한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으니 인재가 드물게 나서, 대개 예부터 걱정하였다. 그리고 이조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쓰는 길이 더구나 좁다. 세족으로서 명망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높은 벼슬에는 통할 수 없었고, 바위구멍, 띠풀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기이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 쓰이지 못한다. 과거출신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으며, 비록 덕업이 훌륭한 자라도 경상에는 오르지 못한다. 하늘이 재주를 태어주는 것은 고른데, 세족과 과거로써 한정하니 항상 인재가 모자람을 병통으로 여기게 되어도 당연하다. 예로부터 지금까지는 오랜 시일이고 세상이 넓기도 하나, 서열이라 하여 그 어진 이를 버리고, 어미가 개가했다 하여 그 인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어미가 천하거나 개가했으면 그 자손은 아울러 벼슬길에 충수되지 못한다. 변변찮은 나라로서, 두 오랑캐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모든 인재가 나의 쓰임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해도 오히려 나라일이 이룩되기를 점칠 수 없다. 그런데 도리어 그 길을 막고는 이에 자탄하기를,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어.”

한다. 이것이야말로 월남으로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은 이웃나라에게 알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부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그를 위해 감상하는데, 하물며 원망하는 남정과 흠여미가 나라 안에 반이 넘으니 화평한 기운을 이루기는 또한 어렵다. 옛날에는 어진 인재가 미천한 데에서 많이 나왔다. 그때에 만약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썼더라면 범문정(范文正)이 정승으로 되어서 공업(功業)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고, 진관(陳瓘)과 반양귀(潘良貴)는 강직한 신하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마양저(司馬穰苴)와 위청(衛青)같은 장수도, 왕부(王符)같은 문장(文章)도 마침내 세상에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낳아주는 것을 사람이 버리니 이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면서, 하늘에 기도하여 운명을 영원하게 한 자는 없다. 나라를 경영하는 자가 하늘을 받들어서 행하면 큰 명수도 또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허균, 유재론(遺才論))

(나)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현행 교육제도가 학생 서열화를 강요하고 학력에 따른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열화의 정점에는 대학입시가 있다는 인식 아래 차별철폐를 위해 학력이 아니라 인간성을 기준으로 대학입학을 허용하고 평준화(平準化)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공부할 학생을 실력과 의지가 아니라 인간성 기준으로 뽑자는 이 주장은 일견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는 월드컵에서 활약할 국가대표 선수를 축구실력이 아니라 인간성을 보고 뽑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낭만적 공상에 가깝다. 월드컵 대표팀을 축구실력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선발한다면, 성격 무난한 선수들로 팀을 만들 수는 있어도 강한 팀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다. 게다가 국가대표 후보군인 수백 명 선수의 인간성 평가도 쉽지 않지만 매년 수십 만 명 규모 입시생의 인간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을 축구실력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差別•discrimination)이 아니다. 선수들의 차이(差異•difference)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력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백 번 양보해서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축구실력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수 전체를 서열화하고 숭고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주장을 인정해, 인간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계적 스타들이 각축을 벌이는 월드컵 본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동네축구 수준에서 맴돌아야 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교육계 일각의 현실인식에서 가장 결여된 관점이 바로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우리 사회 일각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 공동체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차별은 없다. 그러나 차이는 인정한다'는 관점 정립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차별이란 '키,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先天的) 특성을 기준으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차이란 '실력, 성과, 성실도, 적성' 등 후천적(後天的) 노력에 따른 다름을 인정하며, 다름에 따른 프리미엄을 인정하되 기회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 불만족스럽기에, 자신의 문제를 부당한 사회적 차별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 사회에서 '차별 철폐'는 항상 대중들에 대한 호소력도 높을뿐더러, '차별 없는 사회'를 앞세운 정치적 구호들은 그 현실적 가능성과 무관하게 흥행이 잘 된다. 그러나 조직과 공동체가 차별과 차이의 다름을 사려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비현실적 평등개념에 휘둘러서는 변영할 수 없다.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곳이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칼 포퍼는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는 지상에 지옥을 만드는 것으로 끝났다"고 갈파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차별철폐와 결과의 평등을 내세워 지상천국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들이 정작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압살하는 지상지옥이었다. 반면 인간능력의 한계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건전한 경쟁 원칙을 정착시켜 온 사회는 불완전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는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했다.

최근 교육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커지고 있는 '차별철폐'의 목소리는 합리적 논의를 통해 갈무리될 수 있는 사회적 지향점 수준을 넘어서서 종교적 도그마에 가까워지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하는 모든 차이를 차별이라고 강변하는 비현실적 평등 논리는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넘어야 할 대표적인 사고방식이다. (김경준, 차별(差別)과 차이(差異))

(나)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자연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서술해 보시오. (500자)

(가)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 불렀다.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 수명 · 질병 · 형벌 ·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삼백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이때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짚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금기를 지킨 지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문학>)

(나)

과학 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 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자연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재생 능력이 무너지는 생태적 위기가 닥쳐왔다.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를 일삼은 결과로, 인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시바빠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생태계의 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과학적 차원보다는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 풍요와 진보만을 숭상하거나,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지 말고, 산업 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관점 자체를 반성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중략) 자연을 단순히 인간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순간, 인간은 자연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된다. 자연을 순전히 물질적 효용 가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동양의 산수화를 보면,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한 귀퉁이에 인간의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말해 준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하여 인간 중심주의와 기계적 자연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까지 의학과 심리학에서 고안되어 온 거의 모든 치료법들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 왔으며, 충심으로 그 효용성을 증언할 사람들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의학은 멧돼지 이빨, 악어 똥, 이집트 미라 분말, 그리고 다른 많은 상상력이 동원된 치료법들의 치유능력에 대한 증언서를 기록해 왔다. 실제로 처치가 가해지고 있다는 단순한 시사조차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병세가 나아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치료적인 요소가 실제로 들어 있든 아니든지 간에, 어떠한 치료이든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가짜약 효과(placebo effect)라고 부른다. 가짜약 효과라는 개념은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라는 영화에서 잘 예시되었다. 마법사가 실제로 깡통인간에게 심장을, 허수아비에게 두뇌를, 그리고 사자에게 용기를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나아졌다고 느꼈던 것이다. 사실, 의학이 진정으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종류의 치료법을 발전시킨 것은 불과 지난 한 세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 세기 이전까지 의학의 전체 역사는 가짜약 효과의 역사였을 뿐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나)

가짜약 효과의 개념은 생의학 연구를 들여다봄으로써 예시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새로운 의학적 처치에 대한 모든 연구들은 가짜약 효과의 통제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전형적으로, 새로운 약물의 효과를 환자집단을 대상을 검증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집단도 구성하여서 그 약물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약(가짜약)을 주게 된다. 어느 집단도 자기들에게 투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야 한다.

(다) 가짜약 통제를 채택한 실험들은 단지 개선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전체 비율만을 고려하게 되면 특정한 치료법으로 원인을 돌릴 수 있는 개선의 정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왔다. 따라서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환자집단의 진술은 특정 치료법에 대한 신념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지가 않다. 오히려 가짜약 효과가 설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여기서 문제는 증언서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비록 의사가 도움이 될 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경험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치료법조차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피터 메다와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a)건강하지 못한테 b)그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c)건강이 좋아진다면, 의학계에 알려진 어떤 추리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의 건강을 회복시킨 것은 치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요컨대, 어떤 치료적 중재가 가해지게 되면, 그 중재의 효율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짜약 효과가 일어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짜약 효과가 너무도 강력해서 사용하는 치료법이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집단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경우 그 치료법의 효용성을 기꺼이 증언할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데 있다. (스타노비치, “심리학의 오해”)

<문제1>

위 글 (나)의 밑줄 친 제한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새로운 의학적 처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글 (가)에 나타난 가짜약 효과에 관한 설명에 비추어 유추해보시오.



<문제2>

글 (다)에 나타난 증언서의 신뢰성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가짜약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짜약을 포함한 어떤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을 실험에 포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보시오.

## LEVEL 5

### 예제1-공통차이형 4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500자)

(가)

언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 어떤 사회가 구축한 문화는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들을 읽어 낼 수 있다. 둘째, 어떤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 유산이다. 우리가 국어, 즉 우리말을 소중히 간수해야 하는 까닭 중의 하나는 이처럼 우리말에 우리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소중한 문화 유산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규정한 유명한 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상(事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만약 언어가 없다면 존재 자체를 의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 민족이 간직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말 전체를 집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문화이다. 지금 우리말에 들어온 말들이 기층을 부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언어와 문화의 관계,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에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문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문화라고 하면 의식주 등의 물질적 문화뿐 아니라 우주관, 세계관, 사고 방식 같은 정신적인 문화까지도 망라된다. 우리말에는 바야흐로 사라지려고 하는 것도 있다. 국어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어휘, 문법, 표현법 등을 살펴보면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언어는 음성 언어(말)와 문자 언어(글)로 구분되는데 특히 문자 언어는 문화와 문명의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위대한 과학자, 사상가들이 생각해 낸 지혜가 책 속에 저장되는 것과 더불어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문자의 덕택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후손들은 선배들처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생산되는 문학의 위상에 대하여 파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문학은 바로 우리말을 도구로 하여 창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된 뒤부터 많은 문학 작품들이 생산되었으며, 조선 후기,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방대한 양의 문학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의 정서를 문학적으로 가장 잘 형상화해 낼 수 있는 언어는 우리말이다.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이기도 한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서도 우리말을 잘 가꾸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언어 자체가 문화 유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구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말은 지구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 어, 일본어, 스와힐리 어, 유대어,……’등과 같은 여러 언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개별 언어들은 각각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가꾸고 다듬어 온 것으로서 바로 문화적 결실이다. (김광해 외, ‘언어와 문화’)

(나)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은 원래 군신과 부자에게는 각자 이름에 어울리는 윤리와 질서가 있다는 뜻이다. 역사용어에 있어서도 '올바른 이름(正名)'을 붙여주고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이름은 한 집단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왜곡할 뿐 아니라 때론 힘없는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평소에도 무심결에 쓰고 있는 역사용어들이 과연 올바른 이름인지 35명의 학자들이 고민한 산물이다.

지정확적인 용어 중 특히 문제 있는 표현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은 올바른 표현인가. 한정숙 서울대 교수는 "다분히 유럽 중심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표현이지만 현재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어 통용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전쟁'을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제안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6.25'라는 기념 형식의 용어보다는 '한국전쟁'이 낫다고 말했다. '극동(極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극서라는 말이 국제관계에서 안 쓰이는 상황에서 극동이라는 말만 쓰는 것은 서쪽(구미)에서만 동쪽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분단 상황도 역사용어의 혼란에 일조했다. 흔히들 '독립운동'은 우익 민족주의 측에서, '민족해방운동'은 좌익 민족주의 측에서 쓰는 말로 생각한다. 북한이 '민족해방'을 강조해온 탓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운동의 대표격인 임시정부에서도 두 용어를 같이 사용했다. 이기훈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민족해방운동은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제국주의하에서 빼앗긴 사회적 권리의 회복까지 목적으로 하므로 정부를 세우겠다는 독립운동보다 좀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광복'과 '해방'도 비슷한 맥락이다. '해방절'은 미군정을 거치며 '광복절'로 바뀌었고 전두환 시절에 이르면 교과서에서도 광복이 해방을 완전히 대신한다. 그러나 '해방둥이', '해방공간' 등에서 '광복'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본에서 번역돼 수입된 역사용어도 논란의 대상이다. 'civilization'을 번역한 '개화'나 'anarchism'을 옮긴 '무정부주의', 'independence'를 옮긴 '독립' 등이 그렇다. 특히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았다.

아울러 '삼국시대'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만 함께 한 시기가 실제로 562~660년의 98년 간에 불과해 제대로 부르려면 가야까지 포함시켜 '사국시대'로 불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명림 교수는 "1980년대 후반 제주 4.3을 연구하며 '폭동', '반란'이라는 기존 용어에 압도돼 평생 겁에 질려 살아온 제주민들을 보고 이 용어 하나만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역사용어와 기억의 문제는 역사 이해의 문제이자 미래 건설의 철학 및 방향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6.8.26)

(다)

언어의 의미 본질에 대한 구명을 주된 과제로 삼는 분석철학의 한 영역을 의미론이란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 분야의 학자들은 어떤 언어적 표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유의미성의 문제와,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들이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의미동일성의 문제 및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의미 일반의 문제 등 세 가지 의문을 주요과제로 삼아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뤄진 언어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러셀, 초기 비트겐슈타인, 카르납 등의 논리적 원자론과 후기 비트겐슈타인, 오스틴, 라일, 스트로슨 등의 일상언어학과, 촘스키 중심의 생성문법 등이 그것이다. 촘스키 중심의 생성문법 이론도 언어철학적인 전통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의 철학적 관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와 실재 세계는 과연 서로 일치할까?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인식과 실세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연구한 사피어에 의하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으며,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 위프 역시 사피어와 같은 관점에서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구조한다고 말한다.

논리적 원자론으로 접근한 초기 비트겐슈타인과 러셀에 따르면, 언어는 본질적으로 실재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즉, 언어 구조와 실재 세계의 구조는 대응관계에 있으며, 진리함수적 논리의 인공언어 체계가 우리의 일상언어인 자연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러셀, 무어, 프레게 등의 영향 아래 언어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철학적 작업의 본질

이라는 철학관을 가지고, 언어의 본질을 기술적 기능으로 파악하여, 언어는 실재세계에 대한 묘사가 그 본질적 기능이라 보았다. 즉, 그러한 기술적 기능에 의해 언어가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며 의미있는 언어가 된다는 논리이다. 말하자면, 언어가 어떤 사실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언어와 세계가 구조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언어구조와 실재세계의 구조가 1:1로 대응된다는 논리로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실재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자족체계라기보다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해됨을 뜻한다. 앞에서 언급한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에 의하면 언어와 세계는 논리적 형식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언어와 세계간의 논리적 형식의 공유는 언어의 존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어떤 언어든지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논리적 형식의 보유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전제 없이는 언어가 실재세계의 논리적 그림으로서의 역할(사실에 대한 기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언어를 통해 이 세계의 어떤 사실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언어와 세계가 구조적으로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언어의 논리적 구조가 세계의 논리적 구조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실물과 사진의 예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진 속의 인물이나 대상이 실재 세계의 인물이나 대상은 아니지만 분명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한다. 실물과 사진의 이와 같은 관계는 기하학적 유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의 현장 상황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말하는 세계의 구조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언어가 가진 논리적 형식은 어떠한 것일까? 많은 철학자들은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동시대의 여러 학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전위적인 것을 모델로 삼았는데, 기하학, 물리학, 진화론 등이 그와 같은 모델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진리함수적 논리야말로 세계의 구조를 밝혀줄 수 있는 모델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 러셀과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기본적인 성격을 진리함수적인 것 즉, 외연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우리의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명제들은 궁극적으로 단순 명제들의 진리함수적 결합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언어와 현세계에 존재하는 사실 사이에 이와 같은 일치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우리의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진리함수적 체계로서의 일상 언어의 논리적 형식은 일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애매성과 다의성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일상 언어 안에 감춰져 있는 언어의 참모습(논리적 구조)은 일체의 애매성과 다의성이 배제되고, 하나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문법적 형식이 그것의 논리적 구조와 일치하는 언어체계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언어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거울(그림)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할 뿐이다. 인간은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뿐이므로, 언어의 한계는 곧 사고의 한계가 된다. 그러므로 언어의 한계를 아는 것은 사고의 한계, 사유표현의 한계를 아는 것이며,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와 실세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어와 실세계는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김미숙, ‘언어와 인식 및 실세계의 관계’)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한국 사회를 다시 두 갈래로 찢어놓고 있다. 최근에는 시위현장에서 반미주장이 제기 되는 등 FTA 반대 시위가 정치 투쟁화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는 과연 독인가 약인가.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미국 경제에 종속되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한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허약한 국내 시장을 침탈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제2의 IMF 위기 같은 고통을 맞을 것이라는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수입시장 규모만도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위한 선택”이라며 “과도한 국내 시장 보호 논리는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를 후진국에 안주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최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찬반논란을 다루고 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FTA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자)

(가)

자유무역의 이론적 배경에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생산비에 있어 무역 상대국보다 절대우위 또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 서로 무역하게 되면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위해 특화하는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우위에 있는 무역 상대국의 제품이 무역장벽이 제거된 채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해외 시장 규모 확대에 이득을 볼 것이다.

공리주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복의 증진에 둔다. 어떠한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utility)하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다. 벤담에 따르면 사회 제도와 관련한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어떤 제도가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면 그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손실을 보는 개인이 사회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개인에 대해 일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미 에프티에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증가할 것인가? 또한 동북아경제허브 구축 등 다른 이득이 있을 수 있는가?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이고 손실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이득을 보는 집단이 손실을 보는 집단에게 보상이 가능한가? 이러한 보상은 민간 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한가?

(나)

롤즈는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정의는 결과주의라고 비판한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으면(good) 그 행위는 옳고(right), 결과가 나쁘면(bad) 그 행위는 그르다(wrong). 제도의 공정성 여부는 벤담식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결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회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면 인간의 행위를 도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유용성으로 정의 개념을 규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의의 기준이 공정한 것일까? 롤즈는 인간이 사회 제도를 구성하기 전 상태를 원초적 상태로 가정한다. 원초적 상태란 각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산,



능력 등을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상태다. 이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심사숙고해 공정한 규칙을 받아들이게 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기준으로 사회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개인들은 자신이 미래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공리주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들이 원초적 상태에서 모두 동의할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인은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인 자유란 정치적 선거 및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가리킨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인정될 수 있다. 1)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2)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롤즈는 이러한 원칙을 제시함과 함께 정의의 원칙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 관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논의가 가능할까?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되지는 않는가? 이와 관련하여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심화시킨다면 그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인가? 이와 관련해 대기업과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산업의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을 상상해 보자. 첫 번째 판사와 두 번째 판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들이 올바른 판단에 도달하는 확률이  $3/4$ 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그들이 피고가 유죄(혹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릴 때, 평균적으로 네 번 중 세 번은 피고가 실제로 유죄(혹은 무죄)이다. 그리고 그들은 네 번 중 한 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판사는 무책임하다. 사건 때마다 그는 그저 동전 던지기만 할 뿐이다. 그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유죄’라고 말하고 뒷면이 나오면 ‘무죄’라고 말한다. 이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물론  $1/2$ 이다.

마지막 평결은  $3$ 분의  $2$  과반수로 결정된다. 만약 판사 세 명 중 어느 두 명이 피고가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것이 곧 배심의 평결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문의 논리)

<논제>

위에 설명된 재판에서 올바른 평결에 도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반드시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몇몇 선진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볼 때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수입이 많은 직업은 대부분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이 가장 적은 직업들도 대부분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엄밀한 통계는 잠시 접어두고, 일정 이상의 소득수준에 이른 직업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여자보다 남자의 수입이 많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관리직의 약 4할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방해되어 최고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유리 천정”이라고 부른다. 이 격차는 남성 사회에 의한 여성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까?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졌다.

“여성 차별이 원인은 아니다. 여자 스스로가 이 격차를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 각각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이성들 중에서 결혼상대로서 바람직한 이성을 선택하게 해 본다고 하자. 신장, 체형, 성격, 사회적 지위, 수입 등과 같은 배우자의 조건이 주어질 때, 여자에 대한 남자의 취향은 천차만별이지만, 남자에 대한 여자의 취향은 꽤 한결같은 것이다(예를 들어 신장이 큰 편이 인기가 있는 등). 특히 업무상의 지향에 대해서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커리어를 목표로 하는 여자도, 적당하게 일하는 여자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여자도, 제각각 다양한 여러 남자에게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남자와, 적당하게 일하는 남자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남자는 여성들에게 비슷한 정도로 선호되지 않는다. 일 잘하는 남자에게 인기가 집중하고, 일하지 않고 아이와 지내고 싶어하는 남자는 인기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성 도태가 일어난다. 여자는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도 배우자를 만나지만, 남자에게는 돈을 벌지 않고 가정을 지킨다는 선택사항은 허락되기 어렵다.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배우자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성에 대한 남녀의 취향에서 나타나는 경향의 차이는 결혼 상담소 등의 데이터에서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남자의 기호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락되고, 여자의 편향된 기호 때문에 남자의 인생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남녀의 수입 격차는 여자가 차별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삶의 방식에 제약을 부과한 결과다. “유리 천정”이라는 것도, 어떤 벽이 제도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며, 단지 여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제>

“유리 천정”이라고 명명한 현상에 대한 위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 LEVEL 6

### 예제1-공통차이형 45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800자)

(가)

어느 생명 공학자의 말에 따르면 99.9%의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에 반대한다고 한다. 복제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동물 복제에서도 장기나 두뇌가 기형적인 동물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간 복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0.01% 혹은 그 이하의 과학자들 중 일부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유사 종교 단체인 라엘리언(Raelian)의 주도하에 지난 연말 세계 최초로 복제 인간이 탄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간 복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지 5-6년 만에 드디어 복제 인간 문제가 현실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물론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발표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만 것인가’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인간 복제를 포함한 생명 공학의 생명 조작 행위와 이에 대한 종교계의 비난은 근대 이후 줄곧 있어왔던 과학과 종교간의 갈등을 연상시킨다. 천동설에 대한 지동설의 등장, 수혈과 장기 이식, 피임, 시험관 아기, 기형아에 대한 선별적 낙태 등등 과학이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등장시킬 때마다 종교 혹은 기존의 가치관과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인류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과학 기술에 적응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인간 복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은 충격적이지만 그 유용성이 증명되고 일상화되면 기존의 과학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수궁하고 받아들이게 될까? 일부의 사람들은 과학 기술 발전의 논리상 인간 복제는 기필코 현실화되고 말 것이라고 예단한다.

라엘리언들은 인류가 외계인의 복제에 의해 탄생했다고 믿는다. 창조냐 진화냐 하는 생명의 기원 논쟁에서 벗어난 새로운 우주관을 제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인위적인 복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우주관이 옳다면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을 연상해 봄직하다. 그러나 그들의 우주관이 옳다고 하더라도 인간 복제마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생명의 기원과 발생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생명을 복제하는 것이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구나 그들의 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국 영생(永生)을 꿈꾼다는 점에서 어느 사람들의 속내와 다를 바가 없다.

인간 복제는 지금까지의 과학 기술 성과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보인다. 앞에서 든 수혈, 장기 이식, 피임, 시험관 아기, 낙태 등이 처음 등장할 때도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근본적 가치에 대한 도전과 파괴라는 비난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의 유일성’ 또는 ‘독자적 개체성’에 있다고 볼 때 그런 과학 기술은 다른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인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성을 간직하고 있다.

단순화를 무릅쓰다면 인간 복제는 기존의 의료 또는 생명 과학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탐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라 하겠다. 태고로부터 인간은 영생을 꿈꾸었겠지만, 그것을 위해 인간 복제가 현실화된다면 도덕적인 측면은 고사하고 인류의 삶 자체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나)

한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더군다나 보다 발전된 인류의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최초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경탄할 일이며 그러한 기술에 도

달한 우리 스스로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하나의 전 인류적인 축하 이벤트인 것이다. 그 어떤 새로운 발견이든 간에 처음에는 시행착오와 약간의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찌구니 없게도 복제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인 부정만 있을 뿐인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현대 문명을 누릴 자격이나 있는지도조차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은 우스꽝스럽기조차 하다. ‘이브’ 그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며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일 뿐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원래 있던 한 사람의 온전한 DNA를 복제하여 태어났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다)

복제된 인간은 자신을 개별인간으로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타인과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연구팀은 쌍둥이에게서는 그들의 유전자가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제한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연구진은 이 결과를 ‘Social Science and Medicine’에 보고했다.

영국 런던의 세인트 토마스 병원의 쌍둥이 연구소(Twins Research Unit, St Thomas Hospital)의 팀 스펙터(Tim Spector) 교수와 함께 비엔나 대학의 바바라 프라인색(Barbara Prainsack) 박사는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우리는 복제인간이 없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말했다. 일란성 쌍둥이는 단일 난자가 단일 정자에 의해 수정된 이후 두 개의 개체로 분리되어 유전적으로 동일한 수정란이 형성된다. 이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복제인간에 대한 경험을 대신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쌍둥이는 복제인간(복제인간의 경우, 연령의 차이가 있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학자들은 17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였으며 이 일란성 쌍둥이들은 개인성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유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대신 쌍둥이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부모들에 의해 동일하게 길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과학자들은 복제인간이 아마도 다른 사람과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점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성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제인간과 원본 인간의 관계는 축복이며 자신의 특유의 성격은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또 일부는 뒤로 가야 한다고 소리친다. 선장 역시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배는 그만 큰 암초를 만나고 말았다.

지금 배아복제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은 바로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된 이후 인간복제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와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복제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어드밴스드셀테크놀로지(ACT)사의 세계 최초 배아복제 성공은 그야말로 생명윤리에 있어서 하나의 암초와 같다. 왜냐하면 복제된 배아는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면 언제든지 한 인간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은 공상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엄연한 현실이다.

과학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는 분명 혁명이지만, 생명윤리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폭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 결합에 의한 인간 탄생이란 생식의 비밀은 이제 신화 속으로 사라지고, 한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가 동일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간 출생의 신비가 절대자의 손에서 과학자, 그것도 유전학자의 손으로 옮겨왔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간은 신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만물의 영장이 된 셈이다. 만물의 영장이, 특히 생명공학자의 손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더러운 손으로 전락할 때 인류 운



명은 건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사실 배아가 인간이나, 배아복제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느냐 등과 같은 생명윤리 물음은 과학의 물음이 아니라 철학의 물음이고, 근본적으로 종교의 물음이다. 과학은 경험과 이성에 의해 그 참거짓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종교는 초이성의 영역으로 그렇지 못하다. 초이성의 영역이기에 생명윤리의 나침반은 없다. 아니 서로 다른 나침반을 갖고 자기 입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배아복제에 관한 한 어느 입장이 참이라고 논리적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망망대해에 표류하고만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어 암초를 만나듯이, 우리 역시 생명공학에 자본이란 바람이 불어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 자체 역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없다는 말은 과학자 개인의 윤리에 따라 배아복제를 해도 좋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미 ACT사에서 배아를 복제하지 않았는가?

서로 다른 종교, 철학,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원래 민주주의의 본질은 한 사회의 제도나 법률의 내용이 어떠한가의 물음이 아니라, 그 제도나 법률을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하였느냐에 달려 있지 않는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칭)생명윤리기본법을 건설적으로 입법화하고, 또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IRB)를 제도화하여 과학적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

인간의 특성은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은 생물학계의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복제인간의 경우 유전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복제인간은 체세포 제공자를 얼마나 닮게 될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일종의 ‘복제인간’이라 할 만한 일란성 쌍둥이에서 찾을 수 있다. 쌍둥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키나 몸무게 같은 생물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혼 패턴과 같은 비생물학적 행동까지도 유사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을 복제하면 복제인간도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천재가 될까? 과학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한다.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한 환경에 놓이는 반면 복제인간과 체세포 제공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복제인간의 경우 환경의 영향이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복제인간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체세포 제공자를 많이 닮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복제인간이 체세포 제공자와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어쩌면 복제인간은 외모마저 체세포 제공자와 다를지도 모른다. 최근 국내 연구팀은 복제 동물이 체세포 제공자와 다른 외모를 보일 수 있다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흑갈색 돼지를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복제한 돼지 다섯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흰 색으로 태어난 것이다.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복제 돼지가 흰색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에는 핵 속의 DNA에 있는 것 말고도 미토콘드리아 DNA에 있는 것이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전체 유전자의 약 1%를 차지한다. 연구팀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이 유전자가 세포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수정 과정에서 남자를 통해 어미로만 유전되기 때문이다. 다섯 마리의 복제돼지는 각각 다른 난자를 이용해 복제됐고, 따라서 다른 미토콘드리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흔히 복제인간이 DNA 제공자와 100% 같은 유전정보를 갖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과학자들은 ‘복제인간도 복제동물처럼 체세포 제공자와는 다른 사람의 난자, 즉 다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물려 받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100% 같지는 않고 외모도 체세포 제공자와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다.

(가)의 과학에 대한 설명에 비추어 (나)에서 정약용이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 평가하시오. (500자)

(가)

물리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을 발견 하고, 또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 대상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크게는 천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작게는 원자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일수 도 있다. 물리학, 더 크게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으로부터 논리적 방법과 과학적 상상력을 이용하여 가설 또는 기본원리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자연현상을 기술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가설 또는 기본원리가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른 여러 현상들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찰, 논리적 추론을 통한 가설의 수립, 가설의 검증등과 같은 과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측할 수 있으면 법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법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량되어 더욱 완성된 체계를 갖추으로써 과학적 이론이 된다.

(나)

음력 초하루에는 아침 밀물이 묘시(오전 5시~7시)에 있다. 그 후로는 날마다 시간이 늦어져서, 초이틀에는 두시간의 차이가 나게 된다. 초사흘 이후에도 밀물은 매일 두시간씩 늦어진다. 또한 음력 초하루에는 저녁 밀물이 유시(오후 5시~7시)에 있다. 그 이후로 시간 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아침 밀물 때와 같다. 열엿새에는 다시 묘시에 아침 밀물이 있고, 유시에는 저녁 밀물이 있다. 이와 같이 조수는 보름을 주기로 끝없이 반복된다. 섬에서 오래 살아 조수를 많이 알고 있는 작은 형님이 이렇게 말했다. "달이 뜰 때에도 조수가 있고 달 이 질 때에도 조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수가 생기는 원인이 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그렇다면 달이 뜰 때에는 밀물이 있고 달이 질 때에는 썰물이 있는 것이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이 뜰 때에도 밀물이 있고 달이 질 때에도 밀물이 있는데 그 이유 는 무엇일까? 또 달이 중천에 떠 있을 때 밀물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문제에 대 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달은 물의 근본이 되는 정기다. 그 정기가 물에 비치면 물이 감응하여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된다. 달은 하늘 위에 떠서 항상 지구의 반을 비추고 있다.

두 개의 둥근 물체인 지구와 달이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이치상 조수가 생기는 것이다. 지구의 반이 지평선의 경계이기 때문에, 달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밀물이 지구의 앞면과 뒷면 에 생겨난다. 달이 동쪽 지평선 경계에 이르면 달을 마주보는 지구의 앞면에 밀물이 나타난 다. 달이 서쪽 지평선 경계에 이르면 처음에는 뒷면에 있던 물이 나타나서 밀물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땅에 서서 밀물이니 썰물이니, 밀려오느니, 빠져 나가느니라고들 말한다. 물의 실제 모습은 항상 두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산덩어리 같 고 다른 하나는 얼음덩어리 같다. 이 두가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항상 달과 함께 대지의 허리 부분을 끝없이 잇따라 돌고 돌아 그치는 때가 없다. 산덩어리의 형세와 얼음덩어리의 광체는 그 길이가 몇천 리나 되어서 언제나 대지의 허리부분을 감돌고 있다. 그런데 대지의 허리부분에서 멀어질수록 그 여과가 점차 줄어들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항구에까지 이른다. 사람들은 눈 앞에 있는 이 현상만을 보고 이를 밀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관찰에 불과하다. 조수가 생기는 까닭이 달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보름에는 바닷물이 짝 들어차 사리가 되고, 그믐에는 바닷물이 적게 들어와 조금 이 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름에도 사리가 되고, 그믐에도 사리가 된다. 그리고 상현달과 하현달이 뜰 때에는 조금이 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해 때 문이다. 해는 불의 근본이 되는 정기이다. 물은 불을 만나면 끓어서 솟아오른

다. 초하루에는 해가 동쪽에 있고 달이 중간에 있고 지구는 서쪽에 있어서 이 세가지 물체가 일직선으로 있으면 바닷물이 짝 들어차게 된다. 보름에는 달이 동쪽에 있고 지구가 중간에 있으며 해가 서쪽에 있어서 (달이 뜰 때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 물체가 일직선으로 있으면 바닷물이 짝 들어차게 된다. 상현일 때에는 달이 위에 있고 지구가 아래에 있으며 해가 서쪽에 있어서 (해가 질 때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 물체가 삼각형을 이루면 바닷물이 줄어들게 된다. 하현 일 때에는 달이 위에 있고 지구가 아래에 있으며 해가 동쪽에 있어서(해가 뜰 때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 물체가 삼각형을 이루면 바닷물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달은 빛을 내는 힘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으니, 보름날 바닷물이 짝 들어차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초하루와 그믐에는 달이 이미 이지러져 빛을 낼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달은 애초부터 차거나 기울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달과 지구가 서로 비추는데 항상 반쪽만 비추고, 나머지 반쪽은 항상 어둠에 묻혀 있다. 초하루에는 사람들이 어둠에 묻혀 있는 반쪽을 보게 되고 보름에는 빛이 나는 반쪽을 보게 된다. 또한 상현과 하현 때에는 빛이 나는 반쪽의 절반과 어둠에 묻혀 있는 반쪽의 절반을 보게 된다. 따라서 달 자체는 차거나 기우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날개가 있어서 초하룻날 해와 달 사이로 날아가 고개를 숙여 달의 본 모습을 내려다 본다면 보름달처럼 둥글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바닷물을 짝 들어차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간접 민주주의다. 간단하게 말해 유권자가 자신을 대표해 줄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이는 그렇게 뽑힌 자가 유권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거라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다음 제시문은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는 예이다. 각 제시문을 활용해 현대 민주주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1000자)

(가)

영국의 국민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 그래서 대표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위임이 계속되는 임기 동안, 대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태만, 무관심, 그리고 그 무지함에 대해 경탄해 마지않는 바이다. (루소, *대한교과서 <정치> 51쪽*)

(나)

직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의 크기는 100m이며, 각 구역 내에는 매우 고르게 인구가 분포한다. 이 마을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2개 들어서는데, 과연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단,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은 오로지 가게와 집과의 거리에만 관계한다.)

일단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양 마을의 끝에 있다면, 아이스크림 가게의 권역은 정확히 마을의 반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왼편의 가게 A가 중앙으로 10m 이동하면 A의 왼쪽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A 가게로 가고, A, B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A 가게로 이동하기 때문에, A는 전체 상권의 55%를 차지하게 된다. 같은 이유에서 B는 우측 끝에서 10m 중앙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면 두 개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마을의 중심부에서 만난다. (아이스크림 판매의 패러독스)

(다)

2개의 건초 더미 정확히 한가운데에 당나귀가 있다. 2개의 건초 더미는 외형상 완전히 같다. 당나귀는 공복이라 건초를 먹고 싶지만, 어느 쪽의 건초로 가야 좋을지 모른다. 어느 한쪽보다 다른 한쪽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는 선택하지 못하고, 건초 더미 속에서 굶어 죽어 버렸다. (뷰리단의 당나귀)

(라)

한 고속도로를 따라 A, B, C 세 개의 목장이 있다고 하자. 고속도로에서 목장으로 간선도로가 생길 경우 7의 편익을 얻고, 비용은 6이 드는데, 이 비용은 A, B, C 세 사람이 2씩 부담한다. 고속도로에서 A의 목장으로 간선도로가 생길 경우 A만 편익을 얻고, B와 C의 목장으로 간선도로가 생길 경우도, 각각 B와 C만 편익을 얻는다. 이 사안에 있어 과반수 규칙을 적용할 경우 어떤 대안도 선택되지 않게 된다. (로그롤링 Log-rolling, 투표의 딜레마)

**예제4-비판사고형** 48

[문제1]현대의 간접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 다음 표는 각각의 대안에 따라 수혜자가 받는 만족도를 수로 표시하였다. 선거를 통해 이 대안들이 선택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500자)

|       | 대안 I | 대안 II | 대안 III |
|-------|------|-------|--------|
| 수혜자 A | 13   | 12    | 10     |
| 수혜자 B | 11   | 11    | 9      |
| 수혜자 C | 4    | 4     | 8      |
| 합 계   | 28   | 27    | 27     |

[문제2]

위 문제표를 활용해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의 원칙과 최대다수(the greatest number)의 원칙과의 조화”를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시오. (500자)



## PART2 자료 수리형 연습

[문제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가는 차선이 옆 차선 보다 더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차선의 방향이 반대방향보다 더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나)

우리들은 “세차를 하면 그 날 꼭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그러나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세차하는 차량의 수는 비슷하다고 말한다. “세차를 하면 그 날 꼭 비가 온다.”라는 말은 통계적 근거가 없는 심리적 이야기일 뿐이다. 한편 우리들은 사람들이 “내가 지원한 대학교의 경쟁률이 그 해 특히 높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흔히 듣게 된다. 이에 통계적 근거가 있다. 어느 대학교의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 대학교에 지원자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 해 대학진학을 희망한 다른 사람들 역시 지원자가 많은 그룹에 속할 확률이 클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원한 대학교의 경쟁률이 그 해 높았다.”라는 말은 통계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나)의 관점에서 (가)의 두 이야기를 비평하시오.

[문제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능숙하게 착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낮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진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 이 흥미로운 화제에 대해, “뉴욕 타임즈”의 과학 별책 “사이언스 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1984년의 5개월간, 뉴욕시의 고층 맨션에서 고양이가 떨어진 사고 가운데 몇 층에서부터 떨어졌다는 수의사의 기록이 있는 것은 129마리이다(2층~32층). 그 중 사망은 8마리였지만 놀랄 만한 일은 층이 높아짐에 따라 생존율도 높아졌다는 사실이었다. 7층 이상에서 떨어진 고양이 22 마리 중 죽은 것은 단 한 마리뿐이었다. 9층 이상에서 떨어진 13 마리는 모두 살아 남았으며, 심지어 골절상을 입은 고양이는 단 한 마리뿐이었다.

고층에서 떨어진 고양이일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고양이는 떨어지면 ‘종단속도’(그 이상 빨라지지 않는 최고 낙하 속도)에 신속하게 달한다. 고양이의 종단속도는 시속 60마일로,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종단속도의 반에 불과하다. 고양이는 이 종단속도에 이를 때까지 다리를 버티 저항하므로 착지했을 때 다치기 쉽다. 그러나 종단속도에 이른 후에는 몸에 힘을 빼고, 다리를 날다람쥐처럼 넓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높아져 착지 시에 충격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문> 위 글에 나타난 통계 숫자에는 실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후에 이 통계가 근본적인 오해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한 고양이가 더 낮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살아 남기 쉽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통계와 현실 사이의 엇갈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형 혹성(H형 혹성)에 생물이 서식하고 있을 확률을 추정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H형 혹성인 지구에는 실제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것은 훌륭한 데이터다.

그런데, 모집단으로부터 임의로 선택된 1개의 샘플이 우연히 어떤 성질 A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모집단 안에는 성질 A를 만족시키는 것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추론해도 된다. 예를 들어, 공장의 제품들 중에서 적당히 1개 뽑았는데 우연히 불량품이라면, 그 공장 생산품의 상당히 대부분이 불량품이라고 결론 내려도 좋다. 따라서, 지구라고 하는 1개의 H형 혹성 샘플이 생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는, “모든 H형 혹성이라고 하는 모집단 안에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혹성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나] 생명 활동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38억 년 남짓 전의 암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거의 40억년 전에는 원시적인 생명이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추측된다. 지구 탄생 후 5~6억년 정도 지나 운석군이 끊임없이 직격해 오는 지옥 같은 상황이 안정된 직후에, 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이 더 이상 가혹하지 않고 생물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자마자 곧바로 생물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평범의 원리”에 의하면, 지구의 생명이 전우주의 생명 중에서 예외적으로 빨리 생겼을 리가 없다. 즉, 지구 이외의 지구형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물은 곧바로 탄생하기 쉬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형 환경이 우주에 풍부하게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문1> 지구 외의 생명 탐사 계획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위 글 [가]의 추론이 올바른 것인지 평가하시오.

문2> 위 글 [나]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오류를 지적하시오.

**[문제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야간 뺑소니사건에 연루되었다. 두 택시 회사인 갑과 을이 사건이 일어난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진다.

1. 택시의 85%가 갑이고 15%가 을이다.
2. 한 목격자는 택시가 을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정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밤과 동일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목격자는 두 택시 종류를 80%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즉, 목격자는 갑 회사 택시의 80%를 갑이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20%는 을이라고 하였다. 또한 목격자는 을 회사 택시의 80%를 을이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20%는 갑이라고 하였다. (심리학의 오해)

문 1> 사건에 연루된 택시가 갑 회사 택시일 확률이 을 회사 택시였을 확률보다 높다. 뺑소니 택시가 을 회사 택시일 정확한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 과정을 설명하시오.

문 2> 많은 사람들이 위의 문제에 대하여 대략 60~80%의 범위에서 확률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유추하여 설명하시오.

[문제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떤 도시에 두 개의 병원이 있다. 큰 병원에서는 매일 45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난다. 그리고 작은 병원에서는 대략 15명의 아기가 매일 태어난다. 알다시피 대략 50%의 아기가 남자다. 그러나 실제의 비율은 매일 변한다. 때로는 50%보다 높기도 하고, 때로는 낮기도 하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각 병원은 60% 이상의 아기가 남자였던 날짜를 기록하였다.

[나] 주머니에 공이 가득 들어 있는데,  $\frac{2}{3}$ 가 같은 색이고 나머지  $\frac{1}{3}$ 이 다른 색이라고 가정하자.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끄집어냈는데, 4개가 빨간색이고 1개가 하얀색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20개의 공을 끄집어냈는데, 12개가 빨간색이고 8개가 하얀색이었다. (심리학의 오해)

문 1> 위 글 [가]에서, 1년 간 60%이상의 남자 아기가 출산된 날이 더 많은 병원이 큰 병원일지 작은 병원일지, 혹은 거의 동일할 것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 2> 글 [나]에서 주머니에는  $\frac{2}{3}$ 의 빨간 공과  $\frac{1}{3}$ 의 하얀 공이 들어 있다는 것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확신할 것인지 말하고, 두 사람 각각이 내놓을 확률은 얼마가 될 것인지 추측해보시오.

[문제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1749~1827)는 천문 현상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뉴턴 역학의 대성공에 감명을 받고 스스로도 뉴턴 역학의 응용에 공헌하며 세계는 결정론적이라고 생각했다. 즉,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정해져 있는 이상, 뉴턴의 역학 법칙에 의해 미래의 어떠한 시점의 본질도 대략적으로 결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의 우주의 모양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악마가 있다면, 그 악마의 눈에는 미래의 모든 상태를 전망될 수 있다(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완전한 시야를 가진 악마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미래 영겁의 시간 동안 특정한 한 방식의 추이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라플라스는, 확률의 철학적 고찰을 집대성 한 저작 안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다.

질문 : 이 동전은 밀도의 분포가 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이 나오기 쉬운 정도와 뒤가 나오기 쉬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코인을 본 것 만으로는 앞뒤 어느 쪽이 나오기 쉬운지는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  $p$ 는 얼마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대답 1:  $p=1/2$ .

앞이 나오기 쉬운가 뒤가 나오기 쉬운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쪽인지 모르므로 앞이 나올 확률은  $1/2$ 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답 2:  $0 \leq p \leq 1$  이며  $p \neq 1/2$ .

편향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이 나올 확률은  $1/2$ 일 수가 없다.

문 1> 라플라스 자신의 대답은 대답 1과 2 중 어떤 쪽이었을지, 라플라스가 결정론자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유추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시오.

[문제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이 안 보이는 항아리 안에 공이 100개 들어 있다. 먼저 100명이 100만 원을 걸고 게임에 참석한다. 게임 방법은 우선 자신이 꺼낸 공이 빨간 공인지 파란 공인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항아리에서 1개를 꺼내, 꺼낸 공의 색이 예측과 일치하면 정답인 것이다.

그런데, 100명 각각이 다음의 A, B 중 어느 한 쪽의 게임을 선택할 수가 있다.

A: 빨간 공과 파란 공이 50개씩 들어가 있는 항아리로부터 1개 뺀다.

B: 빨간 공이나 파란 공이 합계 100개 들어가 있는 항아리로부터 1개 뺀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는 각각 0개 이상 100개 이하, 합계 100개인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다.

참가자들이 A, B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자유에 맡긴다. 그리고 각각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해하고 있다.

조건 1: 공은 한 사람이 꺼낼 때마다 항아리 안에 다시 넣는다.

조건 2: 참가자는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상식적인 인간이다.

조건 3: 2개의 게임의 참가자의 내기금 합계를, 참가자가 많았던 쪽 게임의 당선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배한다.

즉, 빚나가면 100만 원을 잃는 것은 두 게임이 같지만, 맞았을 경우에는 참가자가 많은 게임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획득하지 못하고 100만 원의 손실로 끝난다.

[나] 300명이 다음의 C, D 어느 쪽 한편의 게임에 100만 원을 건다. 두 게임 모두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랑의 공 300개가 들어간 항아리로부터 1개를 꺼내지만, 그 중 빨간 공이 100개인 것만 알고 있다. 나머지 200개 가운데, 파랑과 노랑의 개수는 모두 0개 이상 200개 이하인 것 이외는 정보가 없다.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빨간 공을 꺼내면 정답.

D: 노란 공을 꺼내면 정답.

문 1> 위 글 [가]에 제시된 두 개의 게임 중 어떤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인지 예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 2> 글 [나]에의 두 게임에 참가할 때, 글 [가]의 조건이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떤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지 유추하여 설명하시오.

문 3> 위의 문제들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면 다음에 제시된 게임 E와 F 중 어떤 게임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게임 E: 빨간 공이나 노란 공을 꺼내면 정답.

게임 F: 파란 공이나 노란 공을 꺼내면 정답.

[문제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개의 구멍 중 1개만 실탄을 장전한 회전식 권총의 탄창을 회전시키다가 멈춘다. 그리고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총알이 나올 확률은 1/6이다.

포로가 된 당신은 이 러시안 룰렛을 강요 당해 살아 남으면 석방되게 되었다. 다만 이 수용소의 룰에서는 실탄을 가득 채운 권총 1개와 빈 권총 5개로 이루어진 권총1~6 가운데, 포로가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그 직후, 병사가 남아 있는 5개의 권총 중에 1개를 택해 천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 보이게 되어 있다.

지금 당신은 4를 선택했다. 병사는 5를 택해 천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찰칵. 총알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늘 하던 대로 당신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처음에 선택한 권총을 버리고, 병사가 택하지 않았던 나머지의 4개의 권총 중 어떤 것으로 선택을 바꾸어도 좋은 것이다. 다만, 병사의 선택 조건의 차이에 의해 게임은 3 종류로 나누어진다.

- ① 병사는 어느 것에 실탄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고, 포로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머지 중 실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권총을 천정으로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있었다.
- ② 병사는 기계적으로 포로가 선택한 권총보다 하나 번호가 큰(6이 선택되면 1의) 권총을 천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있었다.
- ③ 병사는 어느 것에 실탄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나머지 5개 중에 적당히 1개를 택해 천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있었다.

문 1> ①, ②, ③ 각각의 경우, 당신은 살아 남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문 2> 당신은 위의 게임으로부터 살아남아 석방되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부대에 잡혀 이번 수용소에서는 좀 더 무서운 게임을 강요 받았다. 이번엔 ‘역 러시안 룰렛’ 게임이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실탄을 가득 채운 권총 5개와 빈 권총 1개를 갖춘 1~6 가운데, 포로가 1개를 선택한다. 그 직후, 병사가 남아 있는 5개의 권총으로부터 1개를 택해 천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 보인다.

지금 당신은, 4를 선택했다. 병사는 5를 택해 천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발사되어 천정에 구멍이 났다. 여기서 늘 그래왔듯이, 당신에게 마지막 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병사가 손대지 않았던 나머지 4개의 권총 중 어떤 것인가로 선택을 바꾸어도 괜찮은 것이다.

①, ②, ③ 각각의 조건하에 있는 경우, 당신은 살아 남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 PART3 기출문제

### 2009 년 수시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계몽이란 인간이 의타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의타적 상태에 처한 인간은 남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한 상태는 그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의타적 상태는 지성의 결핍이 아니라 남의 도움 없이 지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서 비롯한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가 바로 계몽의 구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토록 의타적인 상태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그러한 상태는 나태와 비겁에서 기인한다. 의타적 상태에 머무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책이 내 대신 지적인 활동을 하고, 성직자가 내 양심을 지키고, 의사가 내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준다면, 나는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돈만 낼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번거로운 일들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다. 후견인들은 사람들이 성숙으로의 과정을 힘겨워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게 여기도록 하고서는 그들의 감독자 역을 자청한다. 후견인들은 우선 피보호인을 입 다물게 한 후 잠자코 있는 그 피보호인에게 그가 보행기 없이는 한 걸음도 감히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지시킨다. 그리고 나서 후견인들은 피보호인이 혼자 걸으려고 시도할 때 당면하게 될 위험들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후견인들의 강조와 달리 그 위험은 실제로 크지 않다. 몇 번 넘어지고 나면 혼자 걷는 법을 끝내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실패의 사례들이 제시되면 피보호인은 겁을 먹어서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개인이 의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는 자신에게 거의 천성이 되어버린 의타적인 상태를 선호하게 되어 당장은 그의 지성을 정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동안 아무도 그에게 지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령과 규칙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저 기계적 작용들은 의타적 상태를 영속화시키는 족쇄들이다. 누군가 그 족쇄들을 벗어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는 단지 좁은 도량을 겨우 건넌 데 불과하다. 그는 아직 그런 유의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다. 무능력에서 벗어나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자유 이외에 계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방에서 “따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 장교는 “따지지 말고 그저 훈련하라”고, 세무원은 “따지지 말고 그저 세금을 내라”고, 성직자는 “따지지 말고 그저 믿으라”고 말한다. 도처에서 자유는 제한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방해하고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촉진하는가? 나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만이 인간들에게 계몽을 가져온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계몽의 진전이 방해되지 않고도,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가령 개인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그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공 조직에서 수행되는 많은 일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메커니즘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정부는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망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만 복종이 있을 뿐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개인은 공적 조직의 구성원이면서 세계 시민사회와 전체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저술을 통해 독서 대중에게 진술하기도 한다. 그 경우 그는 공적 조직원으로

서 그가 맡은 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논의를 펼칠 수 있다. 장교가 근무 중에 상관의 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의 적합성이나 유용성 여부에 대해 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일 것이다. 그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병역의 의무가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할당된 세금에 대해 염치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징벌의 수치를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학자로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서 대중에게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는 시민적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몽 중인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이성을 확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다는 명백한 조짐들을 우리는 본다. 계몽을 가로막고 의타적인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 이 시대는 계몽 중인 시대이다.

(나)

벌린은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자율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고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 없는 자유’는 벌린의 분류에 포섭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는 간섭의 실재 여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를 파악하자면 간섭의 자의성과 행위자가 처한 예측의 정도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지배 상태에 있는 행위자도 간섭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간섭한다고 반드시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 받는다고 반드시 간섭 당하는 것은 아니다. 간섭과 지배는 것처럼 별개의 개념들이다.

따라서 간섭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와 지배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는 서로 다르다.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이 각각 가능하다는 사실은 양자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간섭 없는 지배를 잘 보여주는 예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노예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노예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예가 간사하거나 아첨에 능한 사람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인의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노예는 주인에게 지배되면서도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지배 없는 간섭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선거를 통해 뽑힌 시장과 유권자인 시민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간섭할 수 있다. 시장의 간섭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는 강제나 선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들이 동의한 사안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그 경우 시민들에 대한 시장의 간섭은 지배가 아니다. 시장은 자의적으로 시민들을 간섭할 수 없으며 시민들도 시장에게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다.

결국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는 서로 다른 이상이다. 간섭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을 받는 시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장의 간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간섭은 간섭 없는 자유의 이상과 상충된다. 지배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 받지 않는 노예라 하더라도 그는 피지배 상태에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란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전제 군주정이건 민주 공화정이건 자유의 향유라는 면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지배 없는 간섭의 이상에 의거한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 전제 군주정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주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노예일 뿐이다. 그 반면 민주 공화정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시민이다.

인간 사회에서 간섭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자의적인 간섭은 지배와 예속의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배 없는 자유의 이상은 그러한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강자가 약자를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가 강자의 자의적인 간섭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애들아, 너희들도 아까 보았지만, 날짐승들은 한 지도자 밑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위풍이 당당하냐? 우리들 개구리도 한번 이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바로 턱 밑에 쭈그리고 앉은 멍텅구리 파랑이가 또 주책없이 물었다.

“얼룩아, 지도자가 무에니?”

“지도자란 건 왕이라구두 하구 임금이라구두 하는데, 아까 본 독수리는 이를테면 새들의 지도자요 왕이요 임금이란단다.”

저쪽에서, 역시 파랑이에 못지않은 멍텅구리 검둥이가 바보 같은 소리로 물었다.

“얼룩아아, 왕이란 건 그렇게 막 잡아먹는 거니이? 아이구 무시라아.”

얼룩이는 한번 픽 웃고 좌중을 훑어보았다. 지도자의 참뜻을 아는 것은 자기만이라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못하는 놈은 잡아먹지, 아니 잡아먹어야지.”

“얼룩아아, 어떻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니이?”

파랑이다.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듣고 게으른 짓만 하는 게 잘못하는 거지.”

“얼룩아아, 그런 낮잠 자는 것두 잘못하는 거니이? 어쩐지 무시무시하구나아.”

검둥이다.

“애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새들이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 밑에 일사불란의 질서를 유지하고 단결하였는데, 만약 저마다 멋대로 날뛰는 우리 개구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무어라고 하겠느냐 말이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도 당당한 지도자를 받들고 이 무질서를 질서로 정돈하기를 제의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께 그렇기두 하구나아.”

파랑이다. 모두들 그럴싸하게 구미가 도는 모양이었다.

“여기 반대하는 개구리는 앞발을 들어라.”

발을 드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유독 맨 뒤에 자빠져 있던 초록이가 반쯤 머리를 들고 반박하였다.

“얼룩아, 보기두 싫다. 높은 데서 뿔내지 말구 내려와. 네나 내나 마찬가지로. 지도자구 질서구, 되지 못하게스리. 나는 이대루 자뿌라질 자유, 낮잠 잘 자유, 제멋대루 거꾸로 설 자유가 좋다.”

뱃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으나 눈앞에 있는 군중은 그것이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이 다행이었다. 얼룩이는 초록의 발언을 묵살하기로 하였다. 그는 다시 한 번 따졌다.

“애들아,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이의가 없지? 있으면 앞발을 들어라.”

역시 드는 놈은 없었다.

이때 파랑이가 부스스 일어섰다.

“모두 좋은 모양이구나아. 얼룩아 그럼 니가 그 지도잔가 한 걸 하려므나아. 그리구 내가 좀 낮잠 자두 잡아먹진 말아라아, 증말이야.”

이에 폭소가 터졌다. 모두들 배를 거머안고 웃어 났다. 특히 초록이는 배를 안고 뱅뱅 돌아가면서 허리를 꺾었다.

“얼룩이는 안 된다. 저번에 검둥이한테두 씨름에 졌지 않아? 게다가 목소리두 가느다란 것이 어디 돼먹었어?”

야무지게 생긴 놈의 반박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아까 날짐승 떼가 오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내뺀 것이 바로 얼룩이가 아냐? 그 따위 형겅막대 같은 지도자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나? 적어두 독수리보다 몇 배 나은 놈을 골라야 할 거 아냐?”

“옳소!”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라)

어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가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선택을 타인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의지대로 오른손 또는 왼손을 들고 있다고 하자. 당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당신 앞에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하나는 투명하고 다른 하나는 불투명하다. 투명한 상자 안에는 일백만 원이 들어 있다. 불투명한 상자 안에는 일억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당신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능한 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한다.

(1) 불투명한 상자 하나만을 취한다.

(2) 두 개의 상자를 모두 취한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상당히 뛰어난 예측력을 지닌 어떤 존재가 당신이 할 선택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의 내용에 따라 불투명한 상자에 일억 원을 넣어둘지 말지를 결정한다. 만약 그 존재가 당신이 (1)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는 불투명한 상자에 일억 원을 넣는다. 만약 그 존재가 당신이 (2)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는 불투명한 상자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I. 제시문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30점)

II.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자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III. 제시문 (라)의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1)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2)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의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추론하시오. (서술을 위주로 답안을 전개하되 수식이나 표를 사용할 수 있음.) (20점)



## 2009 년 정시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기아에 시달리는 먼 나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나는 이런 시각을 강한 사해동포주의로 보고 그에 대해 약한 사해동포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약한 사해동포주의도 강한 사해동포주의처럼 하나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다. 약한 사해동포주의에서도 인간사의 옳고 그름은 민족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척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다른 모든 조건이 일치한다면, 에티오피아 농부가 겪는 기아와 폴란드 농부가 겪는 기아는 똑같이 나쁘다. 그러나 두 나라의 기아가 똑같이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이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지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 행위의 주체로서 나는 어느 한쪽을 먼저 도와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그 사안에 대한 도덕적 행위의 이유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 간극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어린이 실종 사건을 들기로 한다. 실종된 어린이가 어느 집 자식이건 상관없이 그 사건은 누구에게나 나쁜 일이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들과 실종된 어린이 사이의 친소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내 자식이 실종되었다면 나는 모든 시간과 공력을 들여 자식 찾기에 전념해야 한다. 내게는 자식을 찾아야 할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는 본능적 욕망 이상의 도덕적 의미가 내포된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나는 자식을 찾아야 할 분명한 도덕적 이유를 갖는다. 실종된 어린이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그 어린이에 대한 내 도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이 남의 집 자식에 대한 책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하다. 어린이 실종 사건은 어떤 경우든 똑같이 나쁘다고 보는 도덕적 판단과, 실종된 어린이에 대한 친소 관계에 따라 발현되는 내 행동의 도덕적 이유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군의 의무들을 다른 일군의 의무들보다 엄격하게 우선시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가 갈등을 빚을 때마다 국지적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나서 여력이 있다면 지구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안은 논리적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다. 이 제안에 따르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입증만 된다면 타 국민에게 무제한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용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외국인을 살해하면서까지 자국민에게 신체 장기를 이식시키는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다. 이 경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구적 의무가 자국민에 대해 가지는 의무에 우선한다.

그렇다고 지구적 의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백신 보유고가 충분치 못할 경우, 정부가 독감에 취약한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정부는 연령이나 그 밖의 적절한 기준에 따라 독감 취약 집단을 선정하고 외국인들보다 그 집단에 백신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예방 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이 독감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국가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더라도, 정부가 자국의 접종 대상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해 보인다.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 중 어느 한쪽에 엄격하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적절치 못하다면, 그 다음으로 사안에 따라 양자를 저울질해 보자는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의무에 대한 최종적 가치는 의무의 심각성, 그리고 의무 대상과의 연관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



해 매겨진다. 여기서 의무의 심각성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의무 대상과의 연관성은 의무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친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어떤 경우에는 신중한 도덕적 판단을 위한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경우에 타당할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가 처한 상황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절망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돕는 의무를 저울질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끼리 강한 의무감을 지니지만, 소수의 동료와 압도적 다수의 외국인 사이에서 후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혜자의 규모에서 볼 때, 소수의 동료에 비해 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의무의 심각성이 현저히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무 대상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소수의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수의 외국인을 먼저 구제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에 두루 통하는 도덕적 기준은 더 복잡한 구조로 구축되어야 할 것 같다.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양자의 의무를 저울질하자는 제안이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 되기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하는 약한 사해동포주의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와 전체 인류에 대한 의무는 다르다. 동료 시민들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전체 인류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와 고용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질서를 더 평등한 관계로 재편해야 할 의무도 없다. 약한 사해동포주의도 강한 사해동포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아에 시달리는 먼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만,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와 인류 전체에 대한 의무가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옹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지적 의무와 지구적 의무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을 파괴했다면, 우리가 초래한 해악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아울러 우리가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인권과 같은 최소 기준의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 비록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

전쟁을 피해 고향 집에 돌아온 나는 하루 종일 독서와 사색에 빠져서 가족들을 무심히 대했다. 그런 가운데에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가슴에 사무쳤다. 고아는 배고픔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혈벗은 노파는 이불도 없이 밤새 웅크려 있으며, 몸쓸 병에 걸린 자들이 허리를 조아려 구걸을 해도 의지할 데가 없었다. 나는 이들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탄식 속에 지냈다. 저들은 저들 자신이 괴로운 것일 뿐 나와는 무관한 일인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동요시키는 것일까? 생각해 보건대 나에게 있는 지각이 천지의 기(氣)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혈맥이 온몸에 통하듯이 모든 사람은 천지의 기와 연결되어 있다. 자식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지각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남의 불행을 차마 견디지 못하는 인(仁)이야말로 바로 사람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온 세상 모든 인류는 나의 동포이다. 겉모습은 서로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책을 통해 저들의 사상을 접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서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고 여러 나라의 예술을 향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가 진보하면 우리도 진보하고 퇴보하면 우리도 퇴보하며, 그들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들이 처참해지면 나도 처참한 심정이 된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끌어당기니 내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열강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난세에 태어나 계급과 인종과 남녀 사이의 억압으로 인한 세상의 괴로움을 목격했다. 내 생각으로는 모든 차별을 없애는 대동(大同)의 도(道)야말로 모든 사람을 이러한 괴로움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동의 도를 이루자면 차별을 낳는 가족

이나 국가 역시 없애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 있으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탐욕을 부리게 되며, 불우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질병과 추위, 굶주림과 무식함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가 있으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를 착취하며 결국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참혹한 지경에 몰아넣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과 국가의 구별을 넘어 온 세계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오래도록 만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일본인 천명의 역사나 러시아인 이천만 명의 기아에 관한 기사도 내 아내의 베인 손가락과 위통에 시달리는 어린 아들의 찡그린 표정만큼 나의 동정심을 자극하지는 못한다. 분명 먼 곳의 불행과 가까운 곳의 불행은 우리 마음에 서로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모든 인간적 사랑과 공감, 그리고 가치 부여는 관심의 원근법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이들은 사랑이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확산되어 가고, 그와 더불어 사랑의 가치도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자기애보다 동료애가, 동료애보다 조국애가, 그리고 조국애보다는 인류애가 더욱 가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속한 집합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사랑도 보편화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심의 거리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사랑을 제각기 참되다고 인정하지 않고, 단지 사랑이라는 동일한 집합의 양적 확장에서 나타난 산물로 여긴다. 즉 강도와 양상을 달리하는 여러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단 하나의 사랑이 그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사랑의 가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속한 집합의 범위가 커질수록 사랑의 대상에 대한 관심의 거리도 벌어지고, 그에 비례하여 집합 안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치들도 주변화 된다는 사실이다. 가족에 대한 나의 사랑에서는 인격적 가치로 간주되던 것이 더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서는 그러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속한 집합의 크기나 그 집합에 속한 사람들의 수와는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의미상의 거리이고, 그 거리가 부여하는 가치의 내용이다.

물론 인류 공동체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보다 더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금-여기’에 속박된 인간이 정말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모든 개인은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더 작고 더 친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공동체 각각의 가치를 구현하며 살고 있다. 그런 개인에게 가까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저 먼 인류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인류애보다 조국애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조국은 인류보다 구체적인 가치의 내용을 개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족보다 인류를 사랑하는 일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

(라)

추운 겨울의 끝에서 희망의 파란 봄이  
우리 몰래 우리 세상에 오듯이  
우리들의 보리들이 새파래지고  
어디선가 또  
새 풀이 돋겠지요.  
이제 생각해보면  
당신도 이 세상 하고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잊으려 노력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아픔은 컸으나  
 참된 아픔으로  
 세상이 더 넓어져  
 세상만사가 다 보이고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이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내가 많이드  
 세상을 살아낸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뜻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마)

다음과 같은 가상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어느 겨울 아침 나는 강독을 따라 걷고 있다. 그때 한 자선단체 봉사자가 내게 급히 뛰어와 말하기를, 내가 입고 있는 외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자선단체는 외투를 불쌍한 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나는 자선단체 봉사자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첫째, 자선단체는 내가 기부한 외투를 판매하여 현재 장티푸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국의 한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둘째, 가까운 곳에서 물에 빠진 아이가 구조되었는데 이 아이를 체온저하증으로부터 보호할 외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체온저하증의 상황은 장티푸스 위험의 상황보다 더 시급하지만, 장티푸스에 걸린 아이가 받을 고통은 체온저하증 아이가 받을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행위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B보다 더 좋거나 덜 나쁘다고 생각한 다’를 간단히 ‘나는 A를 B보다 선호한다’로 표현하자.

내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나의 선호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 (조건1) 체온저하증으로 고통 받는 아이가 있음이 사실로 밝혀질 때, 나는 체온저하증 아이를 돕는 행위(SN)를 이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AN)보다 선호한다.
- (조건2) 나는 체온저하증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AN)를 장티푸스의 위험에 처한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AD)보다 선호한다.
- (조건3) 나는 장티푸스의 위험에 처한 아이를 돕는 행위(SD)를 체온저하증 아이를 돕는 행위(SN)보다 선호한다.

내가 ‘합리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나의 선호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 (조건4) A, B, C라는 실행 가능한 행위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내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하면, 나는 A를 C보다 선호한다.
- (조건5) 조건4에서 행위들 중 하나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나머지 행위들에 대한 나의 선호는 바뀌지 않는다.
- (조건6) 내가 A를 B보다 선호하면, 나는 B를 실행하지 않는다.

I. 제시문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30점)

II. ‘공감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 (다) (라)를 비교하고, 이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공감과도덕적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50점)

III. 제시문 (마)의 ‘조건1’에 언급된 선호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인 반면, 예방접종을 받으면 장티푸스를 피할 수 있는 먼 나라의 아이가 있음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 아이를 돕지 않는 행위는 도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제시문 (마)에 주어진 ‘최소한의 도덕성’과 ‘합리성’의 조건들을 근거로 하여 이 주장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20점)

## 2010 년 모의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1)

다윈에 따르면 부끄러움의 원천은 제3의 인물들의 이목이 자신의 신체적 현상에 집중되고 자신이 과도하게 주목 받는 데에 있다. 내가 보기에 이 생각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의 감정이 생길 때에는 언제나 자아 감정의 강한 부각과 위축이 일어나고 이는 타인의 시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을 느끼고, 이어서 일정한 규범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접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곤 하는데, 이는 자신의 자아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언제나 자신과 자신의 이상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간극을 의식하는 겸손함이 작동한 탓이다.

인격체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남의 접근을 불허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영역의 경계는 문화적 . 개인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일단 이 영역이 침입을 받게 되면 누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침입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과 자신의 항구적인 인격적 규범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여럿이지만, 그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발가벗은 몸이다. 나의 발가벗은 몸에 남의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그리고 이때 나의 자아의 총체성은 훼손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되는 가운데 나의 사적 영역이 침해 받는다면 체면의 손상은 피할 수 없다. 이때에는 남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나의 자아가 부각되지만, 동시에 완벽하고 규범적인 자아의 이상에 못 미치는 결함이 함께 의식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부끄러움은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개인의 부분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그 인격 전체를 건드릴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이 교복 소매에 난 구멍을 감추는 것은 엄격한 선생님의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채용을 앞둔 노동자가 그리할 때에는 구직의 요청이 거부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한 까닭이다. 이 두 경우 소매에 난 구멍은 거북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래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탕진해 몰락한 사람이 구멍 난 옷을 입고 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는 부끄러움의 강력한 이유가 된다. 그는 전에 알던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과거 자신의 모습 전체를 다시 떠올리고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과거 모습에 비추어 현재 자신의 위축된 모습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이 나의 과거와 현재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자아 감정의 교체를 야기하는 사람은 통상 우리와 아주 먼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 거리가 아주 먼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의 자아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전혀 친밀하지 않아서, 그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시간 전부터 알게 되었고 한 시간 후에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될 동승자에게 종종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여행 중의 특이한 개방성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동양의 여자들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데, 이 역시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얼굴은 각자의 인격이 드러나고 각인되는 장소인데, 얼굴을 감추면 자아 역시 사라진다는 것이다. 고대 비너스의 몸을 가리는 동작은 부끄러움에 본능적으로 대처한 것이지만 얼굴을 감추는 동작은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대처 방식이다.

부끄러움의 심리적 구도는 자아의식이 도덕적 과정 속에서 고양됨과 동시에 격하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비로소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외적 u50836 .인은 언제나 남의 이목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정신은 자기 자신과 대면해서 자신을 대상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 감정, 의지를 대신하도록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로부터 분리시킨다. 마치 제3자가 하듯 우리는 자신을 관찰하며 부끄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예리한 이목을 이제 우리 안에 이식한다. 마치 우리 안에 사회집단의 의회 대표를 세우듯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원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보통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목을 통해서 일어날 내적 상황을 순전히 자신 안에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자아의 부각과 위축에 따른 부끄러움이지 부도덕에 괴로워하는 양심의 가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의 감정은 무언가 부도덕한 일을 행했을 때의 의식과 내용적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또 부끄러움은 도덕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사건과 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기관들에 대한 자극이 자주 부끄러움의 감정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심리적 구도만 보면 그것은 도덕적 기관들 그 자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보통의 경우라면 부끄러움을 느낄 행위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끄러운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에 나는 어떤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많은 클럽과 집단들은 개인으로서는 차마 요구할 수 없는 혜택을 베풀어달라고 떼를 쓴다. 북미 어떤 도시의 행정부에서는 행정상의 권력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관직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겼던 적이 있다. 그러자 곧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특정한 개인이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자마자 곧 훨씬 더 과람치한 방식으로 권력의 남용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고대의 역사는 그 어떠한 개인에게도 감히 제공할 엄두도 내지 못할 뇌물을 사회단체들이나 원로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제공했던 여러 사례들을 보여준다.” 부끄러워하는 모든 태도는 원래 자아의 부각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 자아는 자립적 현존, 즉 독립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그 개인은 전체의 부분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하나의 전체인가? 부끄러움의 감정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전적으로 자립적인 자아와 이 자아가 존중하는 객관적 규범의 형성을 전제로 생겨난다. 그런데 개인이 집단 안으로 숨고 집단의 이해관계가 객관적 규범을 대신하면, 이 두 조건 모두가 부정된다. 전자 없이는 자아의 부각이 불가능하고 후자 없이는 자아의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이 초개인적인 전체에 비해서 수행하는 역할이 미미하고, 단지 수동적인 입장만을 취할수록 더욱 심해진다. 고귀한 가문의 하인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뻔뻔함’은 이렇게 설명된다. 루이 14세 때에는 “하인처럼 뻔뻔하다”는 말까지 있었다.

## (2)

생선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고 곰 발바닥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두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생선 요리를 버리고 곰 발바닥 요리를 취할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로움도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할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은 하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것이다.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은 하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고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는 이 마음은 성인(聖人)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잃고 살아간다는 데에 있다.

밥 한 그릇 국 한 대접만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는 이가 발로 차고 욕하면서 주면 행인이나 거지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본래 지니고 있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발동한 것이다. 그런데 엄청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준다면 예의없이 굴욕적으로 준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덥석 받는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좋은 집에 살고 아름다운 처첩을 거느릴 수 있으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떠받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무릅쓰고도 받지

않다가 좋은 집, 아름다운 처첩, 존귀한 대우를 위해서는 받으니 이는 본심을 잃은 것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좇는 데 혈안이 되어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심지어 본래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었다. 마치 원래 나무가 무성했던 우산(牛山)이 무절제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어버려 본래 나무가 무성했다는 사실조차 잊혀져버린 것과 같다.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교화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주면 사회의 악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 (3)

사회마다 정상인에 관한 그 나름의 기준이 존재한다. 고프만이 날카롭게 지적한 바와 같이 정상에서 이탈한 모든 경우들은 수치심과 결부된다. 개인의 세계관은 그가 속한 사회가 지닌 정상성의 규범에 의거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러한 규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수치심이 일어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 수치심은 신체와 직접 관련을 맺는다. 지체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애들이나 비만과 추한 외모, 운동 능력의 부족, 성적 매력의 부족 등에서 사회적 수치심이 빚어진다. 성적 소수자와 전과자, 실업자 등과 같이 개인의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모종의 특성들도 사회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낙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모종의 특성과 관련된 낙인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용이하게 가시화할 수 있는 표시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추구되었다. 그리스어로 ‘오명(stigma)’은 사실상 이러한 표시를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스티그마(stigma)’나 ‘스티조(stizo)’처럼 오명을 의미하는 단어군은 낙인찍기보다 문신 새기기를 언급하는데 그 시대에 문신은 처벌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범법자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기 위해 그의 얼굴에 문신을 새겼다고 한다. 다른 많은 사회에서도 그와 유사한 조치들이 수행되었다. 낙인과 문신이 함께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낙인찍기가 범법자뿐 아니라 다양한 소외 계층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도 여러 사례들을 통해 거듭 나타난다. 노예와 빈자, 성적 소수자와 종교적 소수자들이 그렇게 낙인찍혔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추론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치심이 도처에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상’이라는 개념이다. 그 개념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생각과 결부된다. 한편에서는 정상을 통계학적 빈도라고 생각한다. 정상이란 통상적인 것, 다시 말해 사람들이 대체로 취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은 ‘특이함’과 반대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상’을 선이나 규범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정상이 ‘적절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의 반대는 ‘부적절함’ ‘악’ ‘창피함’이다. 오명과 수치에 관한 사회적 관념들은 주로 ‘악’이나 ‘창피함’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쁘다거나 창피하다고 지탄을 받는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어떤 논자들에게는 사회적 규범의 해로운 측면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그러한 사회적 규범이 법적인 수행을 통해 신성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시민의 동등한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우선 법은 정상과 다르다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은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에 대해 조력하지 말아야 한다.

### (4)

누나와 함께 강에 나간 적이 있었지. 잔잔한 강물 위로 산이 거꾸로 비쳐 있었다. 우리는 바위 위로 올라갔다. 누나는 말했다. 나 목욕하는 동안 넌 여기 있어. 그리고 누나는 나를 바위 위에 뉘었다. 너 일어나면 안 된다. 왜. 나 지금 옷 벗는단 말야. 누나의 목소리가 바위 밑에서 들렸다. 나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누나가 옷으로 앞을 가린 채 내 옆에 몸을 굽혔다. 너 여

기 가만히 누워 있어, 옷이 날아갈까 봐 내 옷을 네 옷깃에 편침으로 꽂아 놓고 갈 테니. 나는 돌아서서 내려가는 누나의 앙상한 어깨와 팔죽지를 보았다. 앞산에서 솔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쉼 없이 하고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돌이 구르면 여자가 죽고 여우가 울면 남자가 죽겠지. 양짓말에서... 음짓말에서... 나는 슬며시 일어났다. 강물에 비친 산속에 누나의 나신(裸身)이 박혀 있었다. 나는 말했다. 누나 나 간다. 그때 누나는 고개를 돌리는가 하자 엄마, 하고 소리치며 강물에 몸을 잠갔다. 그리곤 애애 옷 가져 와,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나는 믿었었다, 열 네 살의 누나가 벗은 몸으로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뛰어 올 것이라고. 그러나 누나는 달려오지 않았다. 반짝거리는 모랫길을 따갑게 밟으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누나의 옷이 허리에서 펄럭일 때 나는 더욱 무서웠다.

누나가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 형이 옷을 내다 준 후였다. 열에 들떠 앓아누운 누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나는 너무 어렸다. 전후(戰後)의 식량난 속에서 누나는 그렇게 누웠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며 맞은 몇 대의 침이 그녀가 받은 치료의 전부였다. 그날 혼자 돌아와야 했던 소년은 신비와 오해의 줄을 풀어 누나의 얼굴 같은 연을 날리며 성장해 버렸다. 날아가 버린 연을 생각하듯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5)

개인이 단순이익 추구자라면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에 무관심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중시하는 복합이익 추구자이다.

복합이익 추구자의 경우, 자신에게 공정한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상대방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공정성을 고려한 행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A: 나에게 공정한 사람을 위해 나는 물질적 이익의 일부를 기꺼이 희생하려 한다.

B: 나에게 불공정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나는 물질적 이익의 일부를 기꺼이 희생하려 한다.

C: 내가 희생해야 하는 물질적 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A와 B가 나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상황은 단순이익 추구 행위와 공정성도 고려하는 복합이익 추구 행위가 다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이다. 제3자로부터 갑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제공받고 이중 일부를 을에게 양도해야 한다. 양도하는 금액의 크기는 갑이 결정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양도액을 제안하면 을은 이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을이 갑의 제안을 수락하면 갑의 제안대로 금액이 배분되지만, 을이 갑의 제안을 거절하면 제3자는 갑에게 제공한 금액을 회수하고 그 결과 갑과 을 모두 아무런 금액도 얻지 못한다. 이상의 상황이 한차례 일어난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사람이 단순이익 추구자라면, 갑이 아무리 적은 금액을 제안하더라도 을은 이를 수락할 것이고 갑은 을에게 가능한 적은 금액을 제안하여 자신이 모든 금액을 독차지하려 할 것이다.

I. (1)을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점)

II. (2)와 (3)의 주장을 비교하고, (1) (2) (3)을 모두 참고하여 (4)를 해설하시오. 그리고 부끄러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50점)

Ⅲ. (5)에서 갑과 을이 복합이익 추구자일 경우 두 사람이 취할 결정에 대해 A, B, C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단, 갑은 을이 공정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을은 갑의 제안에 따라 갑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복합이익 추구의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배분을 제시문의 단순이익 추구의 경우와 비교 논술하시오. (30점)

## 2010년 수시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1)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goodness를 추구한다는 규정은 온당하다. goodness는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의술이 추구하는 goodness와 병법이 추구하는 goodness가 다르듯 기술마다 고유한 goodness가 존재한다. 각각의 goodness이란 그것을 위해 행위와 선택이 수행되는 것을 일컫는다. 가령 의술의 goodness는 건강이고 병법의 goodness는 승리이며 건축술의 goodness는 집이다. 분야마다 다른 행위와 선택을 통해 추구되는 목적이 곧 goodness이다. 인간은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goodness는 행위로 성취되는 모든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목적은 여러 가지이고 그중 어떤 목적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다. 따라서 모든 목적이 다 완전할 수 없지만 최상의 goodness는 분명 완전한 그 무엇이다. 만일 어떤 하나만이 완전하다면 그 하나가 우리가 찾는 것이겠다. 여럿이 완전하다면, 그것들 중 가장 완전한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겠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렇게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다른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능을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goodness는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 활동 자체가 곧 행복이다.

물론 행복은 외적인 goodness도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하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좋은 태생, 훌륭한 자식, 준수한 용모와 같은 요소가 결핍되면 지극한 복에 흠집이 나기도 한다. 행복에는 그런 요소들이 더해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행운이 행복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행복은 배움, 익힘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가, 아니면 신적인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생겨나는가? 신들이 인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행복 또한 신들의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 신들의 선물이 아니고 모종의 배움이나 익힘을 통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 안의 신적인 것들 중 으뜸일 것이다.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이므로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나 말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동물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말한 것일 뿐이다.

행복하려면 완전한 훌륭함뿐 아니라 완전한 생애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생 동안 많은 변화와 갖가지 우연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로이아 전쟁의 프리아모스처럼 가장 성공적으로 살던 사람도 노년에 엄청난 불행에 빠진다. 그렇다면 인간들 중 누구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술론의 말처럼 삶의 끝을 보아야만 하는가? 인간은 죽은 다음에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물론 술론이 한 말의 본뜻은 인간은 죽어서야 비로소 온갖 악과 불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는다. 자손들의 번성과 불운처럼 죽은 사람에게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복되게 살고 이치에 맞게 삶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의 자손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여곡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자손들 중 일부가 좋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려도 다른 일부는 그와 반대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만약 죽은 사람까지 자손들의 이 같은 우여곡절에 함께 휘말려 어떤 때는 행복하다가 어떤 때는 도로 비참하게 된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후손들의 일이 조상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의 주변을 돌고 도는 갖가지 운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이내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는 필경 ‘기반이 취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 여부를 판단해도 좋을까? 인간이 운에 의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이 인간적 삶에 더해질 뿐이다.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행복이고, 그 반대의 활동은 분명 불행을 불러온다. 그러나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다. 그 활동은 학문적 인식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복된 사람들은 그 활동을 누리며 가장 연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간다. 그러한 활동에 대한 망각은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나며 일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 작은 행운은 작은 불운과 마찬가지로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 좋은 쪽으로 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삶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때문이다. 반면 나쁜 쪽으로 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지극한 복을 짓눌러 상하게 한다. 그 일들이 삶에 고통을 불러오고 많은 활동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성이 고귀한 사람은 그러한 불운들을 침착하게 견딘다. 그가 고통에 무더서가 아니라 고결하고 의연한 성품의 소유자이기에 그럴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운을 품위 있게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훌륭한 장군이 주어진 부대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꾸려가고, 좋은 제화공이 자기가 가진 가죽으로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물론 프리아모스가 당한 것과 같은 비운이 덮친다면야 지극히 복될 수는 없겠지만, 결코 비참하게 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실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운수는 이리저리 몰아치며 변화무쌍한 얼굴을 드러내지만, 완전한 훌륭함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늘 그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에 걸쳐 행복하다.

## (2)

추첨은 켄투리아회와 민중의회에서 누가 첫 번째로 투표하는지와 어떤 투표가 먼저 계산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쓰였다. 켄투리아회는 5개의 계급에서 뽑힌 193개의 백인대(百人隊, 투표의 단위)로 구성되었다. 기원전 3세기 말, 추첨을 통해 ‘우선투표 백인대’를 뽑는 관습이 정착되었다. 첫 번째로 투표할 백인대를 의미하는 우선투표 백인대는 상위계급 가운데 하나인 70개의 일급보병 백인대 중에서 추첨으로 뽑혔다. 그 추첨의 결과는 신의 계시로 여겨졌고, 나아가 이 백인대가 투표하는 것 역시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 우선투표 백인대의 투표는 최종적 결과를 미리 알려 준다는 의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뒤에 투표하는 백인대들의 선택까지도 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추첨은 우선투표 백인대의 투표 행위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투표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 혹은 경쟁을 피하게 하거나 완화시켰다. 왜냐하면 추첨은 적어도 계시적이고, 중립적이며, 불편부당한 무엇을 따른 것처럼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추첨은 민중의회에서도 사용되었다. 법률 제정이나 재판을 위한 민중의회의 모임에서, 각 부족들은 차례차례 투표했다. 어떤 부족이 가장 먼저 투표할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나머지 부족들의 투표 순서도 결정되었다. 제일 먼저 투표하는 부족에게는 ‘첫 번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는 어떤 점에서는 켄투리아회의 우선투표 백인대에 상응한다. 각 부족의 투표 결과는 그 부족이 투표를 행하자마자 발표되었으며, 그 동안에도 다른 부족들의 투표는 계속되었다. 법안의 통과나 판결을 위한 과반수가 확보되자마자 투표는 종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중의회의 추첨은 켄투리아회의 추첨과 동일한 효과를 가졌다. 추첨의 종교적 성격과 중립성은 표가 첫 번째 투표 쪽으로 결집되도록 도왔으며, 투표를 하지 못한 부족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3)

운은 선택적 운과 비선택적 운으로 나뉠 수 있다. 선택적 운은 숙고와 계산을 거친 모험의 결과에 관련된다. 가령 주식 투자에서처럼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선택적 운에 해당된다. 비선택적 운은 예측이 불가능하여 피할 수 없는 결과에 관련된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맑은 날 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는 경우가 비선택적 운에 해당된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택적 운 때문에 수입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써 재산이 증감한다면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농부가 실패할 위험이 크지만 성공적으로 수확했을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 작물을 심었고, 다른 농부는 안전한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심었다고 하자. 그리고 전자의 농부는 나쁜 날씨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거나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그 경우 농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안전을 지향하는 선택은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보다 더 큰 소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부가 선택한 작물의 종류와 보험 가입의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비선택적 운이 초래한 결과는 선택적 운의 결과와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매우 유사한 조건 속에서 살던 두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맹인이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경우 맹인이 된 쪽이 애초에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했다고 규정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수입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맹인이 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험 가입의 가능성을 통해 비선택적 운을 선택적 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맹인이 될 가능성을 동등하게 지닌 두 사람이 그러한 가능성을 저마다 충분히 인식한다고 전제하고서 그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똑같이 제공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가정 하에서 한 사람은 보험에 들고 다른 한 사람은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자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셈이고 후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그 경우 두 사람 모두 눈이 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어떤 온정주의적 관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자원 배분의 공평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 미가입자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보상 방식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두 사람이 비선택적으로 악운을 겪게 되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양자 간의 소득 격차를 선택적 운에서 비롯된 것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선택적 운에서 비롯한 결과를 교란시킬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한 주장은 앞에서 설정한 가정 하의 모든 경우에 합당하다. 동일한 위험에 당면한 사람들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선택의 결과는 분배의 공평성에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과 다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앙의 위험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인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장애가 온 사람도 있다. 그들은 보험에 들 자금을 마련하기 전에 장애인이 되었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험에 들 수조차 없다.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도 보험에 들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유전적 가족력까지 조사하는 보험회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것이다. 재앙의 위험이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 보험의 상황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보험을 들 경우에 누렸을 혜택을 전제하고 그 조건에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복지체계를 통해 공평성은 확보될 수 있다. 사회가 그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공평하게 배려하려면 동등하게 조성된 조건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을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렇게 해야 마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義)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명(命)이다. 성인(聖人)은 의를 따르면 명이 자연히 그 가운데 있고, 군자는 의를 행함으로써 명에 순응하며, 보통 이상의 사람은 명이 있음을 앎으로써 의에 따라 행할 것을 결단하고, 보통 이하의 사람은 명이 있음도 모르고 의를 행함도 없다. 그러므로 명을 모르고서 의를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자는 드물고, 의에 이르지 않고 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없다.

명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 없을 때가 있으나, 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예컨대 효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겨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고,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겨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으며, 경건하게 자신의 인격을 수양해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고, 부지런히 덕행을 쌓아야 함에 있어서 그 명이 어떤지 물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명에 대해서 언급할 것 없을 때가 있지만, 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다. 예컨대 곤궁함과 영달함은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구할 수 없고,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귀하고 천한 것은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좌우할 수 없고, 가난하고 부유함 역시 명에 달려 있으니 자기 뜻대로 도모할 수 없는 것이다.

명은 성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을 그것으로 격려할 수는 있으며,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복(禍福)을 그것으로 단정할 수는 있다. 명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잔피를 부릴 것이 없고, 명이 의도적으로 계획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마음 쓸 것이 없다. 어깨를 움츠리고 아첨하는 웃음을 흘리며 부귀를 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의를 견지하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죽어간 자도 있다. 그러나 부귀해질 때가 이르면 도를 굳게 지키는 자도 영달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을 만나면 살기 위해 아무리 수치스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이란 본디 이와 같아서 그것을 뜻대로 바꿀 수 없다. 사람이 참으로 명이 이러함을 분명하게 알고 독실하게 믿는다면, 어느 누가 이익을 구하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고 의에 어긋나는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보통 사람에게 의를 따라 행해야 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명이 있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명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부터 명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자 순박함은 사라지고 임기응변의 꾀만 늘어나 하늘의 도리는 허망해지고 사람의 일은 혼탁해져서, 벼슬자리나 구하고 잇속만 차리며 구차하게 목숨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불어나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이것이 바로 명이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생긴 폐해이다. 명이 없어도 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군자뿐이다.

(5)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개인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첫째는 개인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배경자원’의 수준( $x$ )이고, 둘째는 정부로부터 배분되는 ‘복지자원’의 수준( $u$ )이며, 셋째는 개인의 ‘노력수준’( $z$ )이다. 최종적인 후생수준( $u$ )은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에 노력수준을 곱한 값이라고 하자. 즉,  $u = (x + y)z$ .

한 국가의 국민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배경자원이 1이고 노력수준이 1인 사람들이 25% (집단1)

배경자원이 1이고 노력수준이 3인 사람들이 25% (집단2)

배경자원이 3이고 노력수준이 1인 사람들이 25% (집단3)

배경자원이 3이고 노력수준이 3인 사람들이 25% (집단4)

또한 정부는 개개인의 배경자원과 노력수준을 고려하여 복지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이렇게 배분될 총 복지자원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복지자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일인당 4의 복지자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자.

배경자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제시문 (3)의 ‘비선택적 운’에 해당한다.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비선택적 운으로 인한 후생 격차를 없앨 것을 요구하지만, 노력수준과 같이 개인이 선택한 결과로 발생하는 후생 격차의 교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의 총합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I. (1)을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점)

II.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하고, 이를 참고하여 (4)의 주장을 논평하시오. 그리고 ‘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50점)

III. (5)에서 정부가 취할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제안 A 개인이 사용할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이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B 노력수준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배경자원의 차이로 인한 후생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노력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후생격차가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C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의 총합이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각 제안 하에서 집단별로 1인당 배분될 복지자원의 크기를 구하고, (5)에 나타난 공평성의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 제안을 비교하시오. (30점)



## 2011년 모의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1)

근대적인 의미에서 변증법은 어떤 것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3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먼저 정립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론 또는 운동이 존재한다. 그러한 정립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물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한정된 가치 밖에 없으며 또 여러 약점이 있을 것이므로 종종 대립물을 산출할 것이다. 이 대립되는 관념이나 운동은 처음의 것, 즉 정립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반정립이라고 한다. 정립과 반정립의 투쟁은 어떤 해결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해결은 정립과 반정립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모든 장점을 보존함으로써, 또한 양자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모든 약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정립과 반정립을 초월한다. 제3의 단계인 이 해결을 종합이라고 한다. 일단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종합은 또다시 변증법 3요소의 1단계가 될 수 있다. 즉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도달한 특수한 종합이 일면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종합은 다시 정립으로서 새로운 반정립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점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오해와 혼란은 모순에 대한 변증법 논자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모순이 사고의 역사에서 최고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 매우 생산적이며, 실로 사고가 진보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본다. 변증법 논자들은 생산적인 모순들을 회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순이란 세계 도처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논리학의 이른바 모순율, 즉 모순되는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한 공격이 된다. 변증법 논자들은 모순의 유익함에 호소함으로써 전통적인 논리학의 이 법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변증법이 새로운 논리학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변증법 논자들에 의하면, 모순은 유익하거나 창조적이거나 진보를 낳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했다. 그런데 모순의 창조성은, 우리가 진술들 간의 모순을 허용치 않고 모순이 내포된 이론은 어떤 것이든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바꾸어 모순을 묵인하면, 모순이 그 즉시 모든 다산성을 잃고 만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순은 이제 더 이상 지적인 진보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순을 묵인하면 우리 이론이 갖고 있는 모순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론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순을 용인하면 모든 비판은 그 힘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모순을 용인할 경우, 비판은 물론 모든 지적인 진보 역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변증법 논자들에게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모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다산성 때문이라면 모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변증법 논자들이 모순을 굳이 받아들인다면 모순은 무익한 것이 될 것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 및 지적인 진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립과 반정립 사이의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의하면, 우리는 모순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게 된다. 더구나 이 결의는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순을 용인할 경우 그 어떤 종류의 과학적인 활동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과학의 전면적인 붕괴를 뜻하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논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모순되는 두 진술을 인정할 경우, 어떠한 진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되는 한 쌍의 진술로부터는 어떠한 진술이라도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순율은 모순이 자연, 즉 사실의 세계에서는 결코 생길 수 없으며, 모든 사실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예컨대 양전기와 음전기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요 애매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모순의 실례는 다음의 두 문장일 것이다. 즉 “여기에 있는 물체는 1938년 11월 1일 오전 9시와 10시 사이에 양전기를 띠고 있었다.”는 문장과, 같은 물체에 대해서 그것이 같은 시각에 양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다는 문장이다. 이것은 두 문장 간의 모순이다. 그것에 대응하는 모순적인 사실은 하나의 물체가 동시에 양과 음 쌍방의 전기를 띠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음전기를 띤 물체를 당기는 동시에 당기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순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느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에 과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을 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준은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적어도 남만큼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옹골쳐서 써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을 물려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나와 참회해야 할 것이었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녘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순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 마을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 적을 인민에게 가리켜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 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뉘고 얹히고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 해 토정비결을 사고 만다. 일류 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김 서방 이 주사를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건 제 몇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라고 내가 왔던가 웃으라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준다. 갈보장사를 못 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 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치 신문 기삿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고작이다. 그들의 정치철학은 의문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데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나올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해들게 된 그 흥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날에서 두 번도 없다. [중략]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 가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잇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 리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혼김을 헤치며 미끄러져간다.

(3)

여기 두 종류의 속담이 있다. 하나는 “뽕 반쪽이라도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다수에 대항하는 소수는 반드시 패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쇠보다는 강하지만 파리보다 약한 존재이다.”, “적보다는 친구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전자의 속담들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후자는 누가 봐도 명백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핑카이핑과 나는 후자의 속담 유형이 미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흔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우리는 미시간대학과 베이징대학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일련의 속담들을 제시해주고 각 속담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미국 학생들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속담들을 더 선호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속담들을 선호했다. 이러한 차이가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속담들에 더 친숙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나라 사람 모두에게 친숙하지 않은 유대인 속담을 이용하여 또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즉, 모순을 포함하지 않은 속담보다 모순을 포함한 속담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선호가 훨씬 더 높았다.

‘모순에 대한 선호’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는 매우 뿌리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변증법적 사고라 부를 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모순이 되는 주장들을 타협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었다. 모순되는 두 주장 모두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고방식의 핵심이다.

동양인들의 생각에, 우주는 정적인 곳이 아닌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곳이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립, 역설, 변칙이 늘 발생하며, 신구·선악·강약이 모든 사물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대립은 사실상 서로를 완성시키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도교에서는,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주장들이 역동적인 조화의 상태로 존재하며, 서로 대립적인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상호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노자(老子)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착한 것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생기게 하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성립하게 하며,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서로 기대고 있다.”라고 하였다.

서양 사고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동일률’은 상황도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을 강조한다. 즉, A는 맥락에 관계없이 A인 것이다. 또한 ‘모순율’은 한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 즉,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현대의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의 논리학 원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순전히 형식 논리상 모순된다는 이유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개념이란 단지 사물의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을 동시에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 (4)

지금까지 헤겔의 논리학이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모순이라는 용어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헤겔은 “객관은 여러 가지 것의 완전한 자립성인 동시에 구별되는 것의 완전한 비자립성이라는 절대적 모순”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모순은 명백히 진술이나 판단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거짓인 진술 또는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헤겔은 객관적인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에 있는 사태를 보여 주기 위해서 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부류의 모순을 ‘변증법적 모순’이라고 명명하였다.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들의 오류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본질 속에 모순의 기원이 있다고 헤겔은 생각했다. 사물들이 동일한 관계에서 하나의 특징과 그에 모순되는 반대물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 현존으로 모순을 이해할 때 그에 대한 진술은 형식상 모순된 명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은 철학사상 최초로 실제적 대립을 모순으로 표현했고, 관념론의 입장에서 모순에 대하여 뚜렷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모순을 객관적 사태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 개념은 사회적 모순을 바라보는 관점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모순은 발전과정의 진보와 새로운 것의 등장에 유리한 주객관적 전제들이 밝혀짐으로써 생긴다. 그것은 모든 운동을 특징짓는 안정성과 변화의 보편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이다. 발전과정에서는 늘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모순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양극성은 동일한 하나의 사실 연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된다. 결국 모순은 역동적 대립관계의 발전 국면을 전개시킬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롭게 산출되는 극성(極性)의 성숙한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

많은 변증법적 모순의 현상들이 문학에서 갈등의 형태로 드러난다. 갈등은 대립되는 이해와 경향의 일시적인 상호배척이며,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형태 변화의 역동성을 분명하게 반영한다. 사회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은 문학적으로 서술되고 묘사되는 과정에서 그 내적인 필연성을 드러낸다. 즉 문학적 형상화는 모순들의 일반적 구조에 따라 모순의 전개과정과 해결을 지향하여, 다양한 모순들에서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일치에 이른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모순 개념은 무엇이 참된 모순인가에 관해서 독자적인 이해를 발전시켰다고 평가된다.

#### (5)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를 낳는가? 자원 고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현실의 많은 문제에서 우리는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합리성의 역설’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합리성의 역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사람의 개별적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과 을이 각자 선택지 A와 B 중에서 하나를 취한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 결과, AA(갑과 을 모두 A를 선택), AB(갑은 A를, 을은 B를 선택), BA(갑은 B를, 을은 A를 선택), BB(갑과 을 모두 B를 선택)가 가능하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최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최소극대화 원칙’이라 한다. 가령, 갑이 A를 선택할 때, 을도 A를 선택하면 갑은 4의 이득을 얻고 을이 B를 선택하면 갑은 1의 이득을 얻는다고 하자. 이때 갑이 A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최소 이득은 1이다. 갑이 B를 선택할 때, 을도 B를 선택하면 갑은 2의 이득을 얻고 을이 A를 선택하면 갑은 3의 이득을 얻는다고 하자. 이때 갑이 B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최소 이득은 2이다. B를 선택할 때 얻는 최소 이득이 A를 선택할 때 얻는 최소 이득보다 크므로 갑은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른다면 B를 선택할 것이다.

‘사회적 합리성’은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의 이득을 동시에 높일 수 없을 때 달성된다. 예를 들어, AA의 경우 각자 4의 이득을 얻고, BB의 경우 각자 3의 이득을 얻는다고 하자. 아울러 AB와 BA에서는 A를 선택하는 사람은 5의 이득을 얻고 B를 선택하는 사람은 1의 이득을 얻는다고 하자. 이때 갑과 을 모두 BB보다 AA에서 더 큰 이득을 얻으므로 BB라는 결과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다. 반면, AB나 BA 어느 것도 AA에 비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이득을 주지 않으므로, AA라는 결과는 사회적 합리성을 가진다.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때 ‘합리성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상황 1: 이득이 큰 순서대로 결과를 나열하면 갑의 경우에는 BA, AA, BB, AB이고, 을의 경우에는 AB, AA, BB, BA이다.

상황 2: 이득이 큰 순서대로 결과를 나열하면 갑의 경우에는 BA, AA, AB, BB이고, 을의 경우에는 AB, AA, BA, BB이다.

상황 3: 이득이 큰 순서대로 결과를 나열하면 갑의 경우에는 AA, BA, BB, AB이고, 을의 경우에는 AA, AB, BB, BA이다.

I.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15점)

II. 제시문 (4)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30점)

III. 제시문 (3)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서 제시문 (2)의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에 관해 논하시오. (30점)

IV. 제시문 (5)의 상황 1, 상황 2, 상황 3 각각에서 갑과 을이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를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 분석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합리성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25점)



## PART4 적중! 예상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흔히 마이노리티(minority)란 소수자와 동일시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어떤 사회도 그 구성원의 숫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회의 소수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수자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마이노리티에 분류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남아공의 경우 백인은 10%도 안 되지만, 그들의 정치력과 경제력, 군사력이 다수 흑인을 압도했기에, 백인은 소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수자에 가깝다. 그렇게 보면 마이노리티는 숫자를 기초로 하되, 숫자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질 수 없다. 그 사회의 소수자이면서 권력 없는 약자라면 마이노리티의 원래 개념에 더욱 다가간다. 마이노리티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인종·성·언어·종교가 가장 자주 언급되지만, 계급적 차이, 문화적 차이, 지배가치와 갈등하는 가치관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중첩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중첩적 마이노리티(multiple minority)도 있다. 통상적으로 마이노리티로 분류되는 집단 내에서도 더욱 주변화된 마이노리티 그룹 내지 개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이노리티는 ‘이다’·‘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마이노리티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회에서의 영향력(power of influence) 내지 공식적 무대에서 발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public position)의 측면에서 현저히 취약하거나 아예 그러한 영향력 내지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술한 차별과 억압의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차별과 억압은 ‘다름’(difference)을 관리 통제하는 한 방식이다. 그 기본적인 논리적 도식은 다음과 같다.

- ① 나(우리)는 너(그들)와 다르다.
- ② ‘다름’은 다음의 인식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 . 나는 정상적이고 너는 비정상적·병리적이다.
  - .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다.
  - .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
- ③ 그러므로 나는 너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과 다른 개인 집단을 구분짓고, 그 구분을 단순히 ‘다르다’에 그치지 않고, 그 다름에 서열을 매긴다. 우리를 중심으로 삼고 다른 편을 주변화시킨다. 우리는 선하고 다른 편은 나쁘다, 우리는 우월하고 다른 편은 열등하다는 서열을 매기면서, 다른 편을 악=열등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와 다르게 만드는 그 특성, 그 자질을 가능한 억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정상적(?)인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의 하나일 수 있다.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방어, 개인·집단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이든, 집합의식의 강화를 위해서이든 간에 사회질서의 기본요소로서의 편가름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그 사회는 끊임없이 마이노리티를 생산-재생산해낼 만한 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마이노리티 생산의 고전적 범례로서 흔히 마녀사냥이 인용된다. 중세 가톨릭 질서의 위기를 악마의 세력 탓으로 돌린 다음, 그 악마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마녀사냥이다. 마녀는 악마와 사통(私通)하여 이 세상을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그런데 그 증거는 억지로 끼워맞춘 주위의 정황증거뿐이다. 따라서 특정 부류의 개인·집단을 마녀로 찍고 그들이 마녀임을 자백하도록 강제한다. 마녀는 기존 제도와 권력의 어떤 필요성에서 낙인찍히고, 화형 등의 형벌을 통해 제거된다. 마녀에 대한 재판과 처형의 의식은 위기에 처한 기득권층의 속죄양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 질서의 결함을 메꾸고 재충전하는 사회적 의식이다. 마녀의 존재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통제집단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이미지화되고 그들의 필요와 능력만큼 ‘발명’된 것이다.

누가 그 마녀로 선택되는가. 주로 그 사회에서 힘 없고 대변할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 그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 중에서 선택되었다. 늙은 여성, 집시와 같은 소수인종들, 소수 종교집단들이 그 표적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마녀사냥 그 자체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마녀사냥적 행태는 여전하다. 그 마녀의 이름은 때로는 유대인, 정신병자, 문둥병자, 에이즈, 빨갱이, 반동분자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그 마녀성을 조합해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마녀와 숙죄양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지배의 전략은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 제거하기 : 화형, 처형, 절멸, 인종청소 등.
- 구획짓기 : 아파트트헤이트, 개와 유대인은 출입금지, 집단강제이주 등.
- 낙인찍기 : 신체상의 낙인, 주홍글씨, 노란 별표 달기, 신원특이자 등.
- 수용하기 : 집중캠프, 수용소 군도, 정신병원, 교도소 등.
- 편견과 증오의 확산 : 증오언어, 증오범죄, 천형(天刑) 등.
- 정체성의 드러냄을 억제시키는 보이지 않는 억압기제.
- 무관심과 무배려.

이러한 차별과 억압의 목록에 우리 사회를 대입해 본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제거하기, 구획짓기, 낙인찍기, 수용하기 등과 같은 강성의 방법은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연성(軟性)의 방법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민주주의의 신장의 효과라고나 할까.

그러면 민주주의의 신장과 함께 소수자, 약자 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소수의 지배로부터 다수의 지배로 이행하는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간주될 경우 소수자, 약자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오히려 소수지배체제하에서 마이노리티는 그래도 다수의 억압 받는 세력 속에 편입될 수 있었고, 그 다수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주류가 다수로서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한 뒤, 남은 마이노리티는 더욱 고립되고 주변화될 수 있다.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횡으로 이어지며 힘없는 소수자를 쉽사리 소외시켜 버릴 수도 있다. (한인섭, 「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인가」)

(나)

어떠한 사회에서나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이해 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해 관계의 대립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공선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는 분열·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화와 토론·양보와 타협·다수결 등에 의해 합의를 이루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민주적 생활 원리이다.

토론이란 각 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비판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한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대립되는 의견들이 조정되고 승인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타협이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조정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합의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타협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따라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보다는 문제가 되는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주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종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다. 다수결이란 다수의 의사로써 결정된 것에 대하여 소수가 동의하여 이를 전체의 의사로 인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무리 다수의 의사라 할지라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의사인데 이를 전체의 의사로 승인할 수 있을까? 이는 다수의 의사가 형식적인 다수 의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을 내포하는 의사일 때 전체 의사로 승인된다는 것이다. 즉 평등한 개인 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교류되고, 그 사이에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져서 공정한 의사로 되었을 때 비로소 다수의 의견이 전체의 의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다)

나는 허파이다

坐骨神經痛좌골신경통 앓으며 되짚어본다

왼손잡이가 아닌데도

딸이라는 이유로 오른쪽이 못 되어

왼발로 걷고

왼 눈으로 보고 왼 귀로 듣고

왼손의 혀로 말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걷다 보면 저절로 左側通行좌측통행이 되지만

나는 좌파가 아니다

우파나 남파 북파도 아니다

대파나 쪽파는 더구나 아니다

미국에서 잠깐 공부한 적은 있지만 양파는 아니다

물론 구라파도 아니다

다만 여성인 까닭으로

1.3.5.7.9...의 吉數길수나 陽數양수가 못 되고

짝 없이는 못 산다는 2.4.6.8...의 짝수 陰數음수이다

吉方길방인 東동과 南남이 아닌 西서와 北북이다

하늘 아닌 땅이고, 해가 아닌 달이고, 대낮 아닌 야밤이고

밖[外]이 아닌 안[內]이고, 위[上]이 아닌 아래[下]이고

먼저[先]가 아닌 나중[後]이고, 머리 아닌 꼬리이니

저절로

꿈보다는 해몽에

불공보다는 잣법에

소리보다 추임새에

원님행차보다는 나발불기에 골몰하다가

사람보다는 귀신 도깨비 허깨비에 치우쳐

겨우 숨통 튀어온 허파다, 말짱 虛派허파일 따름이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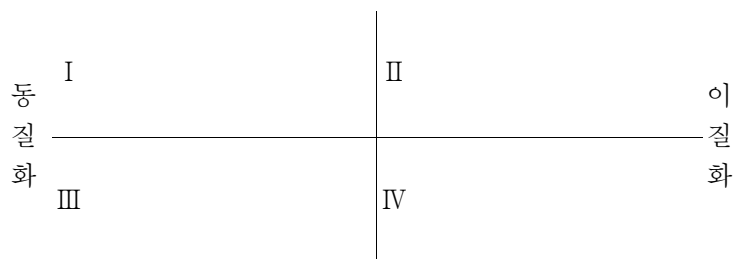
한 사회의 소수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제도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명해보자.

제도적 조건에 속하는 첫 번째 축은 평등화-계층화의 축이다. 만약 소수자 집단의 제도적 조건이 지배 집단과 동등한 수준이라면 ‘평등화’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사회의 자원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불가능한 불평등 상태라면 ‘계층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조건에 속하는 축은 동질화-이질화의 축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수자들이 다수자 집단의 문화와 관습에 완전히 ‘동질화’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완전히 분리되어 고립된 섬처럼 남은 ‘이질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두 축을 교차해 분석 틀을 내놓은 것이다.

<그림 1>

평등화



계층화

<표 1>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

| 이주노동자<br>월평균 급<br>여 수준 | 구분        | 빈도  | 백분율    | 직장 내<br>인권침해<br>경험 (복수<br>응답)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 70만 원 이하  | 43  | 14.6%  |                               | 관리자 폭력    | 51 | 31.1% |
|                        | 71~80     | 125 | 42.5%  |                               | 신분증 압류    | 88 | 53.7% |
|                        | 81~90     | 44  | 15.0%  |                               | 통장 압류     | 26 | 15.9% |
|                        | 91~100    | 57  | 19.4%  |                               | 외출 제한     | 19 | 11.6% |
|                        | 101~110   | 7   | 2.4%   |                               | 강제근로      | 47 | 28.7% |
|                        | 111만 원 이상 | 18  | 6.1%   |                               | 한국 동료와 차별 | 91 | 55.5% |
|                        | 전체        | 294 | 100.0% |                               | 기타        | 7  | 2.1%  |

출처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실태조사보고서 2006

<표 2> 결혼 이민자들이 꼽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한국어 교<br>육 | 취업교육·<br>훈련 | 정보화 교<br>육 | 한국요리<br>강습 | 한국문화<br>이해 | 법률상담 | 의료상담 | 가족관계<br>상담 |
|------------|-------------|------------|------------|------------|------|------|------------|
| 39.7       | 15.2        | 13.9       | 12.5       | 7.0        | 4.2  | 3.6  | 2.3        |

※ 결혼이민자 부부 1177쌍 대상 설문(2006년)

자료 : 여성가족부

[문제 1] 제시문 (가)를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와 대비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 (700자±50자)

[문제 3] 제시문 (라)의 <그림 1>을 활용하여 <표 1>, <표 2>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분석하시오. 그리고 제시문들을 참조하여 한국 사회의 소수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시오. (700자±50자)

**2011년 수시2-2, 대입의 마지막 전략!**

## ‘수시 논술의 비기’ 파이널

학교별 유형대비 맞춤형 특강

이지에듀학원 \* 02-546-8170 \* 강남구 삼성동 27-17 3층

| 지원학교 | A반 개강          | 시수(1T 3시간)  | B반 개강         | 시수(1T 3시간)  |
|------|----------------|-------------|---------------|-------------|
| 중앙   | 19일(금) 오전11:00 | 19일, 3T     | 19일(금) 오후2:00 | 19일, 2T     |
| 성균관  | 19일(금) 오전11:00 | 19일/20일, 6T | 19일(금) 오후2:00 | 19일/20일, 4T |
| 연세   | 19일(금)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4일간, 8T     |
| 고려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한양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서강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외대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경기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서울여대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5일간, 10T    |
| 연하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6일간, 12T    |
| 숙명여대 | 20일(토) 오후2:00  | 7일간, 14T    | 22일(월) 오후2:00 | 6일간, 12T    |